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3호 HYUNBULNEWS.COM 2026년 6월 24일(음력 5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교육 현장 가는 '선명상' '마음돌봄' 이젠 정책으로

서울시 '마음건강' 핵심 과제 제시
경기도, 혜주 스님 '자문위원' 위촉
학생 · 교사 명상교육 잇따라 추진
선명상 대중화, 공교육 안착 '기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학생과 교사의 마음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년간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가 교육 현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선명상이 학교 현장의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넘어 교육정책과 교원연수 영역에서도 논의되면서 공교육 접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6월 15일, 조계종 선명상위원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장)을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선명상 대중화와 공교육 현장 도입을 위한 연구·교육에 힘써 온 혜주 스님의 참여로 관련 정책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당선인은 후보 시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학생들을 위한 명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교육 모델 구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인 6월 16일에도 진우 스님을 찾아 미래 교육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선명상의 교육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교육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6월 17일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약 실행에 착수했다. 추진위·자문위·21개 전문위로 구성된 위원회는 '마음건강·교육공동체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혜주 스님은 서울교육위원회에서도 마음건강 분야 위원 참여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선명상 기반 교육 콘텐츠가 정책 논의 단계부터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 역시 후보 시절 진우 스님을 예방해 학생 대상 선명상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명상 교육 교재인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RISEL)〉의 학교 현장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선명상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건강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며 "성인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선명상 교육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상교육은 학생에만 머물지 않고 교사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불교교육협의회(회장 박병기)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수련원에서 '교사에게 건네는 공명의 눈길-학교의 고통과 교사의 회복을 위한 명상·성찰'을 주제로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명법 스님(해인사 국일암 감원)이 '교사의 명상과 실천', 월정사 교육국장 도원 스님이 '학교 명상상담'을 주제로 강의하며 교사의 심리 회복과 명상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명상이 공교육 영역으로 스며드는 흐름은 조계종이 수년간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계종은 그간 선명상 대중화를 역점 종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전국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국제선명상대회 개최, 선명상위원회 출범, 표준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개발, 학교·기업·공공기관 보급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선명상을 특정 종교 수행이 아닌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생활 수행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도 적극 나서 최근 명상과 사회정서학습(SEL)을 한국형으로 융합한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RISEL)'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 총 6종을 발간했다. 이 교재들은 학습자 수준에 맞춰 개발됐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형 교육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 현장의 마음돌봄 수요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선명상이 학교 공동체의 새로운 교육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혜주 스님은 "명상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BTS 특별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운영했다. 사진은 채식라면 파티 후 범어사 선문화관장 석산 스님과 기념촬영 중인 BTS 팬 '아미'들.

전 세계 BTS '아미' 홀린 범어사

숙박난 겪는 해외 팬 위해
3박 4일 템플 무료 개방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숙박난을 겪는 해외 팬들에게 산문을 활짝 열고, 종교와 국경의 벽을 넘어선 환대를 베풀어 훈훈함을 전했다.

범어사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BTS 특별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사찰이 직접 나서서 부산을 찾은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초 20명(2인 1실)을 모집한 이번 특별 템플스테이에는 918명의 신청자가 몰려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필리핀, 프랑스, 칠레, 일본, 폴란드, 몽골, 페루 등 10여 개국에서 온 팬들이 범어사에 머물며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체험하게 됐다.

범어사는 공연 관람이라는 방문객들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배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입소 첫날인 11일에는 팬들이 공연장에 직접 들고 갈 수 있도록 BTS의 상징색을 활용한 '보라색 연꽃등(LED)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범어사 스님들은 직접 조리한 연잎밥, 떡볶이, 잡채 등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사찰음식을 제공했다. 외출 시에는 종이백에 수제 약과 등 한식 디저트를 개별 포장해 챙겨주고, 1층에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간식 라운지와 BTS 음악 감상 공간인 'BTS Spirit'을 조성했다. 입구에는 '아미 환영 포토존'까지 설치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고 운영한 석산 스님(범어사 선문화관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개방해 세계인들을 맞이해 왔다"며 "이번 행사 역시 공정 숙박 챌린지의 일환이자, 한국불교의 자비심을 전 세계 젊은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작은 선한 마음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감동시키고, 결국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성미 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고

초심이 AI 공모전



경전 속 무겁고 복잡한 교리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쉽고 직관적인 불교의 매력을 현대불교신문 마스코트 '초심이'를 활용해 영상으로 표현해 주세요. 세대를 아우르는 유쾌한 공감대와 참신한 시각으로 일상 속 불교를 빛내줄 창작자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1. 참가 자격
대 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
출품 제한 : 팀(또는 개인)당 최대 1개의 작품만 제출 가능

2. 공모 일정
접수 기간 : 2026년 6월 24일(수) ~ 8월 5일(수)
결과 발표 : 2026년 9월 2일(수) 현대불교신문 지면 및 공식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 개별 통지 병행)

3. 공모 주제 '초심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불교'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나눔, 배려, 명상 등의 '불(佛)며드는 순간'을 AI 영상으로 표현해주세요.

4. 응모 내용 세로형 숏폼 영상(쇼츠 혹은 릴스 형태)
크기 : 1080x1920 해상도 및 30fps 프레임 권장
길이 : 플레이 타임 제한 없음
포맷 : 별도 코덱 없이 재생 가능한 형태(H.264 권장)

5. 시상 내역
대상 200만원(1명), 최우수상 100만원(2명)
우수상 50만원(3명), 장려상 30만원(6명)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 1. 프롤로그 8면

2026학년도 2학기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오프라인 교육)
대원아카데미
불교전법사 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심리상담사 과정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불교전법사 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심리상담사 과정

•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가능 • 접수 : 2026년 9월 1일(화)까지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BBS불교방송빌딩(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02-707-1072

제23회(2026년)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 공모 분야(개인 또는 단체)
(1) 출가 부문 (2) 재가 부문 (3) 특별 정진상

◎ 시상 종류 및 상금(각 부문별)
대상 3,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 장려상 500만원
특별 정진상(2명) 각 1,000만원

◎ 제출 서류 : 제23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 양식
양식 다운 :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공지 사항〉

접수 기간 : 2026년 9월 1일(화) ~ 10월 2일(금)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문의 : 02-719-2606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내용 홈페이지(www.kbpf.org)

진우 스님 "종단 안정 위해 분골쇄신"

지흥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
6월 12일, 백양사 교육관서 봉행
교구본사주지·종회의원 다수 참석
18개 본사 주지, 6월 11일 입장문
비난·비방 선거엔 "단호히 대처"

장성 백양사=김내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2일 장성 백양사 교육관에서 봉행된 은사 백운당 지흥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뜻은 단순히 다례재 참석이 아니라 저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종단을 안정과 화합으로 이끌어가라는 당부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2일 장성 백양사 교육관에서 봉행된 은사 백운당 지흥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다례재는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대거 동참해 종단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오는 9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진우 스님이 종단 안정과 불교 중흥을 강조한 만큼 향후 종단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우 스님은 참석 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지적받을 일도 많지만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종무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포교와 전법을 통해 불자를 늘리는 한편, 한국의 선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정신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내주신 뜻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은사 스님과의 인연도 회고했다. 스님은 "출가 이후 은사 스님께 꾸지람도 많이 들었고, 1987년 완도 신흥사 주지로 갈 때는 유배를 가는 기분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백양사 법맥을 잇게 하려는 큰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은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종단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뼈를 가는 심정으로 역량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성오·종열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용주사 주지 성효, 신흥사 주지 지혜, 법주사 주지 정덕, 수덕사 주지 도신, 직지사 주지 장명, 동화사 주지 선광, 불국사 주지 종천, 쌍계사 주지 지현, 범어사 주지 정오, 통도사 주지 현덕, 금산사 주지 화평, 백양사 주지 무공, 화엄사 주지 우석,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종회의원 40여 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 백양사 대중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 대중은 헌향과 헌다로 지흥 스님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편 지흥 스님 다례재를 하루 앞둔 6월 11일 조계종 18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난 4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종단 화합과 품격 있는 선거 문화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법주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봉선사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입장문에서 차기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과 네거티브 경쟁을 지양하고, 한국불교의 미래 비전과 종책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 스님들은 "현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께서는 지난 4년간 한국불교 종단 최고 지도자로서 불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다"고 평가했다. 그 성과로 △청년 세대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박람회 △종교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현대인의 삶에 맞춘 쉽고 간단한 명상법 보급을 통한 'K-명상' 확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다가오는 총무원장 선거가 종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도 밝혔다. 주지 스님들은 "다가올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쟁인 만큼 훌륭한 구상과 계획을 제시해 새로운 불교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 내는 행위를 단호히 배척하고, 저열한 비방으로 불교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구본사주지협, 농지 조사 대응 등 논의

6월 18일, 선운사서 86차 회의
시·도 국가유산위원 현황 보고도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가 6월 18일 고창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제86차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과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안내 △시·도 국가유산위원회 현황 등이 보고됐다.

총무원 재무부는 농림부가 시행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각 교구본사가 사찰 소유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경 증빙자료와 임대·휴경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 2027년 5월까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시·도 국가유산위원회에 불교계의 입장과 전문성을 대변할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각 교구본사에서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앞서 회장 등운 스님은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7월 30일 화성 용주사에서 개최된다. 선운사=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의 국사가 밝힌 등불, 민족 삶 나침반"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
6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가지산문을 개창하고 조계종 기틀을 세운 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종단의 법맥과 전통성을 되새겼다.

조계종은 음력 5월 2일인 종조 도의 국사 기일을 맞아 6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도의 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의 행장 소개, 추모사, 추모법어, 종사영반, 헌향·헌다·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조께서 세우신 그 발걸음과 종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전법도생 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도의 국사가 전한 선의 가르침이 현대인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이어지길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아무리 크고 깊은 강물도 그 시작은 바위틈에서 솟아난 한 방울의 샘물"이라며 "천년을 이어온 한국 선불교의 법맥도 그 뿌리는 도의 국사의 서원과 수행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도의 국사는 일찍이 중원 선법의 정맥을 마주하고 이 땅에 지혜의 종자를 심었다. 그 가르침을 이정표 삼아 수많은 대중이 참된 나를 찾는 구도의 길에 올랐다"며 "국사께서 밝힌 등불은 곧 우리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자 삶의 나침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은 도의 국사 진영에 향과 차, 꽃을 올리며 부처님 법의 대의를 구하기 위해 구법의 길에 오른 국사의 위법망구 정신을 기리고, 조계종 후학으로서 전법 원력을 다졌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한양 수도성곽, 유네스코 등재 염원"

상진 스님, 유산청 등에 협조 요청
"유산 보존·신앙 조화 모범사례"


북한산성 성곽. 사진 제공=태고종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관계 기관에 불교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태고종은 최근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 공개 행사를 계기로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등재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태고종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미래 세대는 물론 전 인류와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고종은 불교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관계 기관 및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유·무형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의례와 신앙 활동, 국가유산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산성 내에 위치한 태고종 종단 사찰들과 관련해서도 세계유산 보존과 종교 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고종조 보우 국사가 창건한 태고사를 비롯한 북한산성 내 사찰들은 오랜 세월 수도성곽과 함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불교문화유산이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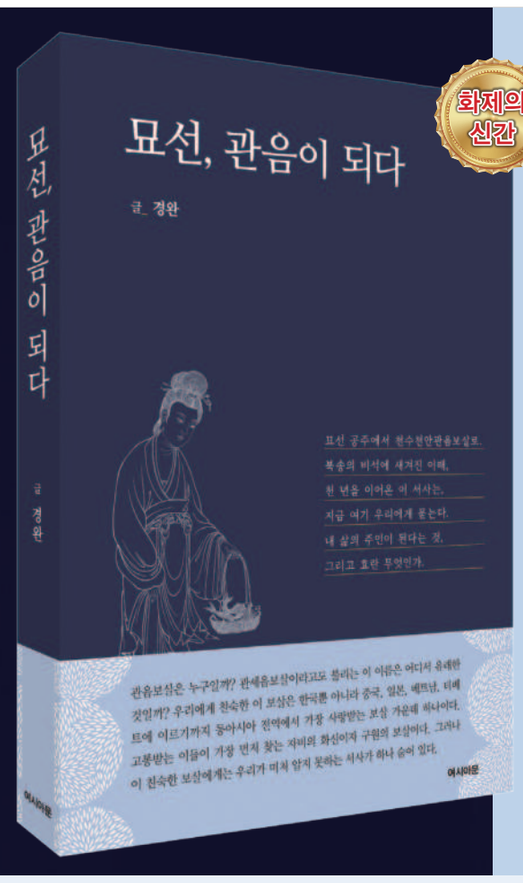
경완 스님 지음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선재 스님이 차린 '청년 밥상'

6월 16일, 서울 연화사 공양간
조계종 복지재단 '청년밥심'
120명 공양…스님들 직접 배식
음식 속 '생명 존중' 의미 강조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등이 6월 16일 연화사에서 열린 '청년밥심'에서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한 방울의 물에 온 우주의 생명이 들어 있고, 하나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해 사찰음식을 대중에 알린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사찰음식에 담긴 의미를 알렸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운영하는 '청년밥心'의 1학기 마지막 배식이 6월 16일 서울 경희대 인근 연화사에서 열렸다. 이날 청년밥심에는 선재 스님과 대표이사 도륜 스님,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 배식에 동참했으며, 평소 정원(100명)보다 많은 120명의 학생이 공양에 함께했다.

이날 '흑백요리사 2'에서 많은 호응을 받은 선재 스님의 당근국수가 준비돼 학생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선재 스님이 사찰에서 직접 담근 간장으로 조리된 당근국수는 설탕 없이 당근 본연의 단맛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와 함께 죽순오이무침, 양배추흑임자무침, 참외무침, 과일방아화채 등 다채로운 음식이 차려졌다.

선재 스님은 먼저 "세대와 계층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며, 복지재단의 나눔 활동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인사했다.

음식과 생명 존중의 관계를 설명하는 짧은 강의도 이어졌다. 스님은 "내 앞에 당근국수는 농작과 조리 등 사람의 손길을 거치는 것은 물론 뜨거운 햇빛과 거친 비바람을 견디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우주의 생명을 거쳐 내게 오게 된 것임을 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꿀꺽' 하고 먹을 수만은 없다. 먹을 때 잠깐이라도 자연의 소중한 생명을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20명의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찰음식의 가치를 되새기며 공양하고 있다.

'잘 먹는다는 것'의 의미도 짚었다. 스님은 "잘 먹는다는 것은 우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나만을 위한 음식을 추구하기보다 자연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자연 속 생명은 다 연결돼 있다는 관계를 배울 때 '먹는다'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식 봉사자로 나선 선재 스님과 도륜·묘장 스님 등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직접 나누며 응원을 건넸다. 학생들도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찰음식의 가치를 되새기며 공양했다. 조민수(28·경희대) 학생은 "매일 밥을 먹다보면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만드신 분의 노고를 생각하게 됐다"며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을 생각"이라며 웃어보였다.

사찰음식은 외국인 입맛도 사로잡았다.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며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레나타(29·한국외대) 학생은 "브라질에서는 주로 고기와 콩을 먹는데 사찰음식은 나물과 과일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또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라 더 찾게 되는 것 같다"며 "특히 참외로 반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찰음식을 먹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퀴어 축제서 오색 팔찌 나눔…"차별·혐오 종식"

6월 13일, 서울 남대문로 일대서
조계종 등 70개 부스, '평등' 기원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사세요." "오색 팔찌보다 본인이 더 예뻐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사노위는 6월 13일 서울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에서 열린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성소수자들의 자유·행복과 평등 세상을 기원했다. 부스 진행은 사노위 소속 스님들과 성소수자 불교 모임 '불반' 관계자가 함께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퀴어퍼레이드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올해 '교집합: 다름을 연결로'라는 슬로건으로 총 70개의 부스가 설치·운영됐다. 이날 주최 측이 추산한 축제 참여자는 17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15만명보다 많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뜨거운 햇빛 아래 축제를 찾은 이들의 모습에도 열기가 가득했다. 부스 체험을 위한 대기 줄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참여자들은 스님들이 운영하는 부스를 보고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불교가 대단하다"며 환호했다.

사노위 스님들은 '오색실 팔찌' 7000개를 준비해 참여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며 정성껏 팔찌를 묶어줬다. 다섯 가지 색이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팔찌처럼, 우리 사회도 다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자는 염원을 담은 것이다.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이 참여자에게 오색 팔찌를 묶어주고 있다.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역설한 위원장 지몽 스님은 "오색 팔찌에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담겨 있다"며 "제각각 생김새와 생각은 다르지만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강조했다.

오색 팔찌를 받은 참여자들도 감사를 표했다. 성소수자 친구들과 함께 온 으애(활동명·16·서울) 씨는 "올해 처음 퀴어 축제를 찾았는데, 다같이 오색 팔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오색 팔찌를 받고 눈물을 보인 참가자도 있었다. 김수민(35·서울) 씨는 "스님들이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 한 마디를 건네는 걸 보니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며 "불교계가 나서 격려하고 챙겨주는 것을 보니 불교에 대한 신심도 생길 것 같다"고 기뻐했다. 부스 체험 이후 참여자들은 종각역에서 출발해 명동성당을 거쳐 을지로입구역까지 함께 행진하며 마음을 나눴다.

이현희 기자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미얀마 정수시설 7호…본뺀 사원학교에

재학생 포함 4000가구도 혜택
강금자 불자 세 번째 후원으로



국제구호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함께 진행 중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의 결실로 최근 미얀마 본뺀(Bone Pyan) 사원학교에 정수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일곱 번째 정수시설로,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인근 마을 4000가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미얀마 양곤 딴린 타운십에 위치한 본뺀 사원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에는 재학생 337명과 교직원 11명을 비롯해 거주 스님도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본뺀 사원학교는 그동안 식수 부족과 수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기에 빗물을 저장 탱크에 모아 침전 과정을 거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염된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건강을 위협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현지 조사와 협의를 거쳐 본뺀 사원학교를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 독자인 강금자 코끼리부동산 대표가 550만원을 후원하면서 나눔에 동참했다. 강금자 불자는 지난해 3월부터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에 꾸준히 후원하며 이번이 세 번째 동참이다.

올해 4월 8일부터 진행된 정수시설 공사는 현지 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지원은 특히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더한다. 미얀마는 최근 자연재해와 경제난, 사회 불안 등으로 위생 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깨끗한 식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도시 주변 빈곤 마을과 농촌 지역 주민들 상당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별도의 정화 과정 없이 섞인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묘띤자밋 학생(G7학년)은 "집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행복하다"며 "학교가 자랑스럽고 기부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미얀마를 비롯한 식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깨끗한 물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물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02-725-4277

후원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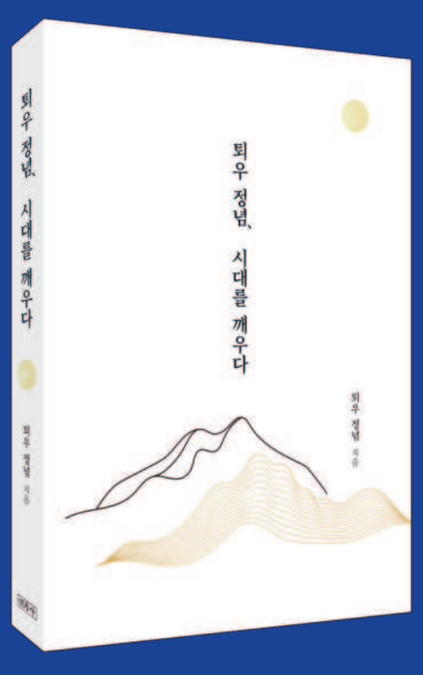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7대 종교, 시민 마음에 귀 기울이다

한국종교지도자협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14일 서울 청계광장 일원에서 '마음 Knock, 생명 Talk' 국민마음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에 공감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종교인들이 시민들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Talking and Listening'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 마음의 힘을 기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 344쪽 | 18,500원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화엄의 세계관으로 읽는 AI시대 문명 철학서
"수행은 법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불교가 시대와 만나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앰베서더 풀만 호텔 (장충로 2가) 그랜드볼룸
민족사

‘노인복지 20년’ 정관 스님 퇴임

6월 16일, 종정 공로패 수상
승려복지기금 등 2000만원 나눔도
6월 18일, HW컨벤션센터서 퇴임식
“수행자로서 나눔·복지 활동 지속”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관 스님에게 종정 공로패를 전달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함께해 축하했다.

임은호·이현희 기자

20년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이끌어 온 정관 스님이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관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2007년 개관과 함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소임을 봐 온 정관 스님은 6월 30일 관장직에서 퇴임한다. 정관 스님은 20년 동안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며 불교 사회복지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진우 스님은 이날 공로패를 전달하며 “정관 스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결같은 원력과 헌신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인간 존엄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지역 사회와 한국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귀감이 됐다”며 치하했다. 이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재단 산하 여러 복지관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기관으로 손꼽힌다”면서 “행정 전반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불교복지의 위상을 높여왔다”고 격려했다.

정관 스님은 “스님으로 살아왔기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수행·정진할 수 있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함께해 준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다. 앞으로는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소림사 살림을 잘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과 승려복지기금으로 총 2000만원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6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정관 스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정년 퇴임식’도 거행됐다.

정관 스님은 퇴임사를 통해 “이제 복지관을 떠나지만, 스님과 수행자로서 소림사 소임에 진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뒷배경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김형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이 정관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박진식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일동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관 스님의 원력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도륜 스님은 “정관 스님은 복지 일선 현장에서 앞세우기보다 함께 걸었으며, 가르치기보다 몸소 실천했다”며 “자비의 향기는 종로 골목을 넘어 사회 곳곳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온 스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광용 스님은 “도량 곳곳에 심은 사랑, 열정, 현신의 씨앗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축하했다.

퇴임식 이후에는 정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서울 소림사가 주최한 ‘서울시민불교문화축제’가 진행됐다. 시민들도 함께 불교사회복지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역 사회 속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자리로, 축제에는 국악 공연과 선명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13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제4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9개 지구에서 200여 명이 동참했다.

106주년 대불청 “부처님 가르침 삶 속에”

6월 13~14일, 신라불교초전지
제44차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사)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이길수, 이하 대불청)가 창립 106주년을 맞아 전국 청년불자들과 “시대 변화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대불청은 6월 13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신라불교초전지의 법향, 대불청의 초발심으로!’를 주제로 제4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성지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지구 청년불자들이 참가해 수행과 포교, 봉사의 원력을 되새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불교의 자비와 지혜는 더욱 필요한 가치”라며 “청년불자들이 서로의 원력을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의문에서 청년불자들은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돌아보는 공감의 가치는 오히려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전해온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길수 대불청 중앙회장은 “전국청년불자들이 선배들의 원력을 이어받아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청년불교의 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다음날 참가자들은 구미 도리사를 찾아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구미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은 “청년불자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내가 이 시대의 아도화상이다’라고 선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박지운기자

비구니 스님 보금자리 ‘나란다 수행관’ 4호관 개관

비로자나국제선원, 6월 13일
1·2관 홍제동, 3·4관 금호동


비로자나국제선원은 6월 13일 ‘나란다 수행관’ 제4관을 개관하며 수행관이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학업·전법 활동을 지원하는 ‘나란다 수행관’이 네 번째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원력의 결실을 이어가고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은 6월 13일 나란다 수행관 제4관을 공개하며 수행관이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란다 수행관은 2018년 2월 자우 스님의 원력으로 개관해 현재 1·2관은 서울 홍제동에, 3·4관은 금호동에 자리하고 있다.

나란다 수행관은 한때 폐관 위기를 겪었으나 불자들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원희·임영자 불자와 후원자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조원희 불자는 2023년 본인 소유의 공간을 무상임대해 제3수행관 개설에 힘을 보탰고, 올해 83세인 임영자 불자는 5000만원을 후원하며 총 12개의 방사를 갖추고 48명의 스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수행관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관장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선주 스님, 동국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와 박사과정을 겸하고 있는 반야·진정·성조 스님과 석사과정의 덕민·불수 스님, 중앙승가대에서 불교학강의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 규은 스님, 사찰음식 전문화에 힘쓰는 하경·정재 스님, 영적 돌봄활동과 명상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석사과정 중인 범준 스님, 염불과 불교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지선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수행관은 거주 공간을 넘어 수행공동체 역할도 하고 있다. 스님들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어 학업과 전법포교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한다. 동국대 석·박사 과정에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나란다봉사단’은 올해부터 동국대 곳곳을 청소하며 불교적 실천과 봉사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자우 스님은 “도심포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주거와 생활 문제로 도심 전법 현장에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있다”며 “나란다 수행관 후원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 스님을 키우고 ‘도심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박지운 기자

진관사서 “백초월 스님 애국 정신 계승”

6월 17일 제35회 호국기원법회
순국선열 추모, 장학금 전달도



서울 은평구 불교계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백초월 스님의 애국 정신을 계승해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스님·삼천사 회주)와 조계종은평구협의회(회장 보관 스님·수국사 주지), 은평구청불심회(회장 위선옥)는 6월 17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제35회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불교에서는 은혜를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한다”라며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은혜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문에 나선 성운 스님은 주먹을 들어보이며 “주먹을 쥔 자리는 암흑이다. 모든 세상사에 집착해 쥐고 있으면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며 “지나간 것에 매여 구속과 집착하지 말고 주먹을 펴 환한 세상에 나를 들여 놓아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삼천사 성운장학재단(이사장 성운 스님)과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가 함께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삼천사 동출 스님은 보훈부 추천 유가족 자녀 10명에게, 법해 스님과 보관 스님은 은평구청 모범공무원 가족 17명에게, 강순옥 인덕원 대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녀 11명과 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추천 모범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은평구청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원 3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참석 대중들은 위선옥 은평구청불심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진관사는 백초월 스님의 불굴의 독립정신과 애국혼이 서린 태극기가 숨겨져 있던 자랑스러운 호국의 성지”라며 “그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참석한 사부대중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자비행을 실천한 것”이라고 발원했다. 박지운 기자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해체 보존된다

2023년 12월 비신 동결파손
6월 16일 해체…3년간 복원



지난 2023년 급격한 한파로 동결파손된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사진〉가 해체 보존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 이하 센터)는 6월 16일 진행 일정을 공개했다.

낭원대사탑비는 통일신라 말 낭원대사(834~930)의 행적을 기록한 문화유산으로, 고려 태조 23년(940)에 건립됐다. 하지만 2023년 12월 중순, 대관령 인근 강릉 보현사 권역에 발생한 급격한 한파로 비신(碑身) 내부 수분이 얼어 팽창하면서 동결파손이 발생했다. 당시 기온은 이틀 사이 10도 이상 급격히 하강했으며, 이후 X자형의 관통균열이 확대되고 신규 균열도 발생하며 탑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연 2회 정기조사와 중점관리대상 모니터링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E등급(수리 필요)’ 판정을 내렸다. 정밀한 환경 제어가 가능한 실내에서의 해체 보존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센터로 이송이 결정됐다.

낭원대사탑비 해체 작업은 6월 16일부터 실시됐으며 이수와 비신, 귀부 전체 부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신은 균열이 심화된 상태를 고려해 전용 프레임과 가압조절장치를 적용한 맞춤형 해체 틀을 사용해 안전하게 해체된다.

해체된 부재는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정밀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대학생 불자, 교내 근로자 선물 ‘훈훈’

동국대 WISE캠 불교동아리
6월 11일 선물 전달식 개최



대학생 불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내 현장 근로자들에 감사 선물을 전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 불교동아리는 6월 11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선물 전달은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학 구성원의 일상을 지원하는 환경미화, 경비, 통학버스 운행, 택배 종사자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동아리 학생들은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교내에서 ‘작은 정성 큰 행복’ 캠페인을 펼쳐 소액 모금 활동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 메시지 작성 행사를 진행했다.

모금에는 학생과 스님,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불교동아리 학생들은 모금액 전액으로 건강 음료, 커피믹스 등 감사 선물을 마련했다.

하수령 간호대학 불교동아리 ‘메타’ 회장은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까지 땀 흘려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어주시는 또 하나의 가족 같은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성제 스님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대견했다”면서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큰 행복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청와대 경비단, 낙산묘각사서 템플스테이

국가 중요시설의 철통 경비를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대원들이 밤샘 근무 후 휴식 대신 산사를 찾아 마음을 내려놓았다.

관음종 낙산묘각사는 “6월 18일 101경비단 5대대 5제대 대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팀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마음수련 체험’ 당일 템플스테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밤샘 근무를 마친 직후 찾아온 귀한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찰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4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된 이날 템플스테이는 108배 및 108염주 꿰기, 다도 체험 등이 이어졌다. 신중일 기자

봉선사 '운허체 현판 제막'

6월 13일, 산문 앞서 현판식 거행
'교해선림 대본산 운악산문' 담겨
"운허 서체·봉선사 정체성 계승"
월운 스님 원력 기린 기신재도

남양주 봉선사=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6월 13일 '교해선림 대본산 운악산문'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산문을 금단청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중흥조 운허 스님의 서체를 집자해 제작한 현판을 새롭게 올리며 교구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을 다짐했다. 또 한글대장경 완간에 평생을 바친 월운 대종사 입적 3주기를 맞아 기신재를 봉행하고 역경 불사의 원력을 되새겼다.

봉선사는 6월 13일 '교해선림 대본산 운악산문' 현판 제막식과 월운 대강백 3주기를 추모식을 거행했다.

새 현판은 봉선사 중흥조 운허 스님의 친필로 만든 서체인 '운허체'를 집자해 제작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다와 같이 깊고 숲처럼 무성하다'는 뜻을 담은 '교해선림 대본산 운악산문'을 새겼다.

이번 산문 건립과 금단청 불사는 2022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약 4년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이 투입됐으며 티움건축사사무소의 설계와 아정문화재의 시공, 장기웅 단청장의 작업으로 완성됐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기념사에서 "운허 스님의 서체를 연구해 현판을 모신 것은 봉선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선센터 건립 등 포교와 치유의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과 최현덕 시장 당선인 역시 축사를 통해 봉선사가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길 기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판식에 이어 청풍루에서는 '월운당 해룡 대강백 시적 제3주기 기신재'가 봉행됐다.

기신재에서는 월운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됐으며 스님의 역경 원력을 계승하기 위한 법보 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운허 스님이 생전 작성한 '이산혜연선사 발원문'과 월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원 스님이 번역한 '격외염롱문'.

이날 봉정된 법보는 운허 스님이 우리말로 옮기고 친필로 남긴 '이산혜연선사 발원문'과 정원 대종사가 번역한 〈격외염롱문(格外拈弄門)〉이다. 특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은 운허 스님이 1950년대 초 해인사에 머물던 시절 번역한 것으로, 현재 전국 사찰에서 널리 독송되는 귀중한 자료다.

한문과 함께 쓰여진 발원문은 1969년에, 한글로만 쓰인 발원문은 1970년에 운허 스님이 손수 작성했다. 친필로 작성된 1969년 발원문은 운경 스님과 정수 스님을 거쳐 지난 4월 7일 봉선사 문중 '향림회'에 기증되며 세상에 알려졌으며, 1970년 발원문은 큰법당 낙성을 기념하여 작성된 것으로 월운 스님이 간직해 오던 친필본을 영인했다.

월운문도회장 철안 스님은 "발원문과 〈격외염롱문(格外拈弄門)〉을 군법당 등 대중에 널리 보급해 어른 스님들의 역경 포교 정신이 가정마다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의 법석에서는 월운 스님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조실 부림 밀운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월초·운허·월운 스님으로 이어진 한글대장경 완간은 불교사에 길이 남을 대공덕"이라며 "어른 스님들을 기리는 '팔만대장경 번역 완간 기념관'을 건립해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법사·임허사, 동국대에 '장학금'



포항 원법사(왼쪽)와 임허사가 동국대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원법사, 9번째 지미불 장학금
6월 17일 임허사도 1000만원 후원

포항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와 임허사(주지 철우 스님)가 대학생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동국대 '지역미래불자장학(이하 지미불)'에 잇따라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원법사는 이번이 아홉 번째 전달로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원법사는 6월 15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포항 원법사 지미불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과·법과·약학대학 학생 30명에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1년 첫 후원에 이어 이번까지 총 6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해운 스님은 "오늘 장학금은 학생들에 대한 원법사의 믿음이자 기도"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임허사도 6월 1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임허사 지미불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학생 10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철우 스님은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것을 다시 나누고 싶은 사명감이 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지운 기자

생명나눔, 백혈병 환자에 치료비 300만원 지원

6월 12일, 법인 사무실서
혜수 스님 "쾌유 한마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이하 생명나눔)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 나눔' 가치를 실천했다.

생명나눔은 6월 12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손소영(가명·53세) 씨에게 '환자 치료비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기금은 생명나눔이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해 모연됐다.

6월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손소영 씨는 백혈병 투병 중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종양이 재발돼 항암제 처방과 면역기능 유지를 위한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손 씨에게는 돌봐야 하는 두 자녀가 있다. 한 명은 중증 자폐를 앓고 있어, 자신의 치료비는 물론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치료비 전달에 함께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손 씨에게 격려를 전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스님은 먼저 "치료비를 전달받을 수 있는 인연이 돼줘 저 또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치료비는 물질적인 의미뿐 아니라, 부처님 뜻 속에서 한마음으로 환자분들의 행복과 건강 회복을 비는 마음에 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선원도 손소영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내겠다"고 응원을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6월 12일 서울 본부에서 손소영 씨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손소영 씨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살아 저도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손 씨와 함께 참석한 권지혜 태화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도 "치료비 지원 대상은 성인보다 아이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생명나눔이 성인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매월 1~3명의 환자를 선정해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생명나눔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뉴델리서 관절 수술

2024년 이은 2차 수술로
티베트 불교계 관심 확대


사진 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오랜 지병으로 알려진 무릎관절에 대한 수술을 뉴델리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8일 '라디오 자유 아시아(RFA)'는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공식발표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달라이라마의 근황에 대해 보도했다.

달라이라마의 오랜 주치의인 체탕 D. 사두창 박사는 수술 후 회복 중인 90세의 달라이라마를 대신해 뉴델리에서 영상 성명을 발표했다. 8일 달라이라마 공식 채널로 공개된 영상에서 사두창 박사는 "6월 제14대 달라이라마 존자가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2024년 뉴욕에서 받은 오른쪽 무릎 수술에 이은 추가 수술"이라고 말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는 건강하며 수술역시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티베트 안팎의 모든 티베트인과 달라이라마를 존경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달라이라마의 입원 소식에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회가 인도의 뉴델리, 다람살라, 라다크, 강톡, 문드곳 등 여러 도시에서 티베트 난민들과 현지 불교도들의 주최로 열렸다.

특히 오는 6월 말 장기간 방문이 예고된 라다크 지역은 특히 철야기도가 열리는 등 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6월 12일 오전 퇴원해 현재 뉴델리에 머물고 있으며 수술경과에 따라 다람살라로 귀환, 혹은 바로 라다크로 출발할 것으로 현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호국보훈의 달 '추모와 평화' 법석

통도사, '야전병원' 역사 되새겨
진여원, 28년째 순국선열 기려
청소년 위한 '명상 문화대전'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계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발원하는 법석이 이어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부산 진여원이 위령재를 통해 숭고한 희생을 추모한 데 이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중과 호국정신을 전하는 명상 문화대전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참혹했던 한국전쟁 당시 전각을 야전병원으로 기꺼이 내어주며 자비와 애국을 실천했던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6월 13일 설법전에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제5회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하며 국난 극복의 호국불교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겼다.

이번 위령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으며 머물렀던 상이군인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추모 법석이다.

이날 법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원 원산 대종사를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전국 각지 부대의 군법사들이 참석해 영가들을 추모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 학도병 1기 박기수 씨와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해 준 김용길 씨, 고(故) 권태술 참전용사의 유가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호국영령위령단 앞에서 통도사 염불원 스님들과 어산단이 전통 불교 의식으로 위령재를 거행하며 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현덕 스님은 "통도사는 오랜 세월 국난의 위기마다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국가와 함께해 온 호국도량"이라며 "육군병원으로서 전상자들의 상처를 치유했던 통도사의 동체대비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선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6월 13일 설법전에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제5회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헌향을 마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반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2019년 용화전 미륵불 복장물에서 '미륵불좌상조성연기문'이 발견되고 대광명전 전각 내 군인들의 낙서 흔적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통도사는 군사편찬연구소의 고증을 거쳐 지난 2021년 11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 이후 매년 위령재를 열어 잊힌 역사를 발굴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고 있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12일 부산 북구 화명동 현충근린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8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혜총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진여원 회주)은 추도법문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기 위해 존재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호국영령들의 이타행과 헌신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보타월 봉행위원장(진여원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진여원의 호국보훈 활동 역사를 소개했다.

남 원장은 "진여호국영령위령재가 28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북구청과 군부대, 보훈단체, 그리고 보훈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진여원 가족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보훈가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령재가 봉행된 장소인 호국영령 추모비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 428위의 영령을 모신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여원 남보타월 원장의 서원과 원력을 시작으로 지역기관과 전몰장병 유가족, 주민이 함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2년 7월 29일 건립했다.

대한민국청소년마음평화 선양회(지도법사 덕원 스님)와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김재호)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마음평화 명상 문화대전'이 6월 13일 부산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과 평화, 호국정신의 가치를 일깨우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마음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 슬로건은 '청소년, 평화를 노래하다'로 정해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지도교사, 학부모, 불자들이 함께했다.

덕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과 평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AI시대, 시조로 민족 정신 이끈다"

제43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
대상 이경임 시인 등 6명 수상
성파 대종사 "민족 문화 동력"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시조 사랑으로 시작돼 43년의 역사를 이어온 '성파시조문학상'이 올해도 한국 시조 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감원 서송 스님)은 6월 13일 통도선예관에서 '제43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은 6월 13일 통도선예관에서 '제43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 후 기념촬영 모습.

성파시조문학 대상은 시조집 〈나의 사소한 연대기〉를 펴낸 이경임 시인이 수상하며 상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이어 성파시조문학상에는 곽종희 시인의 〈동해남부선〉과 이경옥 시인의 〈길 위의 오답 노트〉가 선정됐다. 평론상은 배옥주 평론가이 '위험한 인식의 계보-윤금초 연작 '독의 계보' 읽기'가, 작가상은 이혜숙 시인의 〈닭의 계보를 읽다〉와 송미아 시인의 〈공생의 꽃밭〉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가 가진 본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성파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시조 문학이 가져야 할 사회적, 민족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우리가 뜻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문학의 한 분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민족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조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짐도 이어졌다.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장인 서운암 감원 서송 스님은 "제40회부터 전국 규모로 격상된 이후 훌륭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며 시조 문학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인들뿐만 아니라 대중이 함께 시조를 즐기고 사랑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운암은 시조의 계승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제42회 성파시조백일장'을 일반부(초·중·고·대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교육 현장에 자비·지혜 등불 밝히자"

부산교직원불자, 6월 13일
범어사 보제루서 대법회 봉행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손은주)는 6월 1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2026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대법회'를 봉행하고 교육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직원 불자들의 원력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대법회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법성 스님(전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김경희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 손은주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직원 불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발전과 지역 불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조선자·박명희·전정숙·최준철 회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은주 회장은 "AI시대에도 학생의 아픔에 공감하고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교직원불자연합회가 교육과 수행을 함께 실천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찰서 댄스 실력 맘껏 펼쳐요"

6월 13일, 진해 대광사서
제26회 청소년 산사음악회

진해 대광사(주지 자경 스님)는 6월 13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26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대광사 산사음악회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행사로,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회주 운성 스님과 주지 자경 스님을 비롯해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상임고문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진해불교사암연합회장 송림사 지암 스님, 천자암 해초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인광사 대월 스님, 청용사 유방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식전행사와 2부·3부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대광사 시라다도회의 헌다 시연과 예불이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광사 반야찬불단의 찬불 공연이 펼쳐졌다.

청소년 공연에서는 K-팝 댄스팀 '이화이모션'과 '뮤즈'가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춤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 청소년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산사음악회의 주인공으로 무대를 빛냈다. 3부 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박성온과 김용임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다.

회주 운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산사음악회를 찾아주신 불자와 시민 여러분 덕분에 대광사가 밝고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찬 것 같다"며 "청소년 댄스팀의 수준 높은 공연을 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진 뛰어난 감수성과 예술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강노인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행사

6월 11일 '금강, 일상을 만들다'
원행 스님 "어르신 복지에 최선"

사회복지법인 금강(대표이사 원행 스님·정인사 주지) 산하 금강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곽인철)은 6월 11일 '금강, 일상을 만들다'를 주제로 개관 2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해 회원 작품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부스에서는 업사이클링 레진아트, 치매예방 캠페인,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대표이사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21년 동안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관이 더욱 큰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29회 혜원 백일장 시상식 개최

6월 13일 혜원정사서…26명 수상
"글로 세상 바라보고 나 찾는 시간"

부산 혜원정사(주지 인호 스님)는 6월 13일 설법전에서 '제29회 혜원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문학적 재능을 격려하며 미래 세대의 창의적 사유와 인문정신 함양을 응원했다.



혜원문화재단(대표이사 원허 스님)이 주최한 이번 백일장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운문 부문 시제는 '빛나는 순간'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산문 부문 시제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살기'와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기쁨'이 제시됐다. 참가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만의 시선과 상상력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혜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총평을 통해 "수상 여부는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작은 차이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해 선택받은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AI와 로봇이 일상을 바꾸는 시대가 올수록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에서는 차하상 10명, 차상상 11명, 장원 3명, 대상 2명 등 모두 26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운문부문 최서윤(데레사여고 1년) 학생과 산문 부문 문예서(세연고 3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차하상 수상자에게는 5만원, 차상상 수상자에게는 10만원, 장원 수상자에게는 30만원, 대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연합회, 하안거 맞아 '금강경 독송'

6월 17일 내원정사서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하안거를 맞아 재가 불자들과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의 가르침을 새기는 법석을 마련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6월 17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제3회 스님들과 함께하는 우리말 금강경 독송'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하안거 기간 재가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석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하림 스님, 부회장 정관 스님,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등 회원 스님들과 15개 사찰에서 3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6·15선언 뜻 이어 평화통일 기원”

세종 광제사, 호국위령재 봉행
스님 출신 홍범도 장군 다례도
탄대 스님 “남북은 생명공동체”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종 광제사는 6월 15일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 기원 세계평화 · 남북평화통일 기원 호국위령재’를 봉행했다.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기원 세계평화·남북평화통일 기원 호국위령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재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의식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한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다례재도 함께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주지 탄대 스님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경원사 주지 효림 스님, 용주사 용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 신도국장 영범 스님, 2군사령부 무열사 주지 현조 스님·부주지 눌지 스님,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야허 스님, 17전투비행단 호국영축사 주지 자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주지 탄대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6·25 참전 호국영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분단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세웠던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진리를 설하셨듯 남과 북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생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홍범도 장군 다례재의 의미를 설명하며 “홍범도 장군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행했던 스님이었지만 지금까지 다례재를 봉행한 사례는 없었다”며 “광제사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과 수행자의 삶을 함께 기리는 다례재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봉행해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특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시 광제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뜻깊은 행사가 봉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당선인은 추모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종교육청은 학생들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 대표 한준서 한국영상대학교 학생은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되새겼으며, 어린이 대표 현명빈 도담초등학교 학생은 발원문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감사드리며 온 세상이 평화를 기원했다.

광제사는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평화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으로는 한국영상대학교 한준서(영상촬영조명과)·최경준(공연예술평생교육학과)·송인의 학생이 선정됐다.

한편, 세종 광제사 경내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열린 평화문화제에서는 호국위령재 세계평화사진전이 마련돼 금강산 신계사와 유점사를 비롯한 북한 사찰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선보였다.

화엄사 여름밤, ‘인문학’으로 수놓는다

‘화야몽’ 7·8월 진행…7월 3일까지 접수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여름밤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차와 문학, 전통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인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화엄사는 7월 18일과 8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내에서 여름밤 인문 프로그램 ‘2026 화야몽(華夜夢)’을 개최한다.

‘지리산 바람이 지나고, 별빛 아래 차 한 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천년고찰 화엄사의 밤 정취 속에서 차와 문학, 음악과 사유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소규모 야간 프로그램이다. 특히 구례의 대표 전통음악인 ‘구례향제 줄풍류’ 식전공연이 마련돼 지리산의 바람과 별빛,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전할 예정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7월 18일 열리는 ‘차의 세계’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장 덕제 스님이 강연자로 나서 차 문화의 의미와 역사, 차와 수행의 관계를 소개하고 산사 차 명상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화엄사의 여름밤 속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참가 인원은 25명으로 제한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8월 22일 열리는 ‘정지아 작가와의 만남’이다.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는 고향과 가족, 역사와 삶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정 작가는 소설집 〈행복〉 〈봄빛〉 〈숲의 대화〉 〈자본주의의 적〉과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 〈아버지의 해방일지〉 등을 집필했으며, 김유정문학상과 만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참가 인원은 30명이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사의 여름밤은 낮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지리산의 바람과 별빛 속에서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는 시간”이라며 “화야몽을 찾는 이들이 천년고찰 화엄사의 품 안에서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평온한 밤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은 7월 3일까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소년들, 운문사서 마음 내려놓다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
6월 13일 ‘원데이 명상’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는 6월 13일 운문사 선열당과 만세루 등에서 ‘운문사 마음ON,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에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돌보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회장 무영 스님)는 6월 13일 운문사 선열당과 만세루 등에서 ‘운문사 마음ON,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운문사승가대학 제29회 졸업생들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마음을 켜다, 지혜를 밝히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능인중, 청도고, 개운중 학생 및 동련 어린이청소년연합회 회원 등 청소년 불자 108명과 운문사승가대학 동문 스님, 학부모와 교사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집중력과 자기돌봄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 연수법회를 겸해 진행되며 청소년과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입재식에서는 BBS불교방송 ‘원영 스님의 마음 TALK’ 진행자인 원영 스님이 ‘미래를 여는 문’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문사수명상원장 일중 스님이 선명상 지도법사로 나서 구체적인 명상 방법과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학인 스님들의 법고 시연을 시작으로 운문사 도량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걷기 명상에 참여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호흡명상과 싱잉볼 명상, 스님들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다.

운문사승가대학총동문회장 무영 스님은 “마음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이 도량의 새소리와 물소리, 바람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보길 바란다”며 “세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 마음의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으로 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운문사 마음ON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운문사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백고좌수계법회

6월 13일, 월정사·온라인서
5000명 동참…불교 중흥 발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의 대표 신행 결사체인 금강경봉찬기도회는 6월 13일 월정사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백고좌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5000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참여 대중들은 한국불교의 중흥과 올바른 신행문화 정착을 발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았으며, 총무국장 인광 스님이 갈마아사리, 수행원장 자현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나섰다. 또 스님 100명이 수계법사로 동참해 금강경봉찬기도회 회원들의 수계를 증명했다.

정념 스님은 법문에서 “문명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보살계를 수지하고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성불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며 “받은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는 수행이 한국불교 중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계의식은 수계법사 스님들이 직접 연비를 진행했으며, 소이회 팀장과 지역별 차량 대표들에게 수계첩을 수여했다. 또한 소이회에서 2년 이상 봉사해 온 회원들에게 공로상을 전달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제5대 김윤봉 학장 취임

6월 14일 대법당서 취임식
설정 스님 초청 법회도 봉행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학(이사장 백준기)은 6월 14일 4층 대법당에서 김윤봉 제5대 학장 취임식 및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김윤봉 학장〈사진〉은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 4기와 법사과를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전북불교대학 출신 최초의 학장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포교대상, 불자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 학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 발전과 수행공동체 구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김 학장은 “우리 모두는 3000년 전 영축산에서 부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인연으로 금생에 다시 만나게 됐다”며 “올해 우리 불교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발원을 세웠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로부터 내 안의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는 깊은 성찰로 지혜를 깨달을 때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전북불교대학이 수행과 화합, 포교가 주체가 되는 대학으로서 모범이 되는 수행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증명 법사로 나선 설정 스님은 인류 문명의 위기 속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했다. 스님은 “대립과 갈등, 전쟁으로 얼룩진 현대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의 길로 인도할 마지막 희망은 오직 불교뿐”이라며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한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은 본래 청정하고 고요하며 아름답고 지혜로운 참생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붓다라마사, 송끄란 축제

6월 14일 새해 축제 봉행
관불 의식 · 태국 음식 나눔



천안 태국불교 붓다라마사(주지 찌라삭 스님)는 6월 14일 태국 전통 새해 축제인 ‘송끄란(Songkran)’ 행사를 봉행했다.

송끄란은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태국 전통 새해 맞이 축제로, 물을 뿌려 액운을 씻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행사다.

붓다라마사는 한국의 기후 여건과 재한 태국인 공동체의 참여를 고려해 송끄란 행사를 6월에 열고 있다.

행사는 참석자들이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정성껏 준비해 승가에 공양하며 보시의 공덕을 쌓고, 승가와 재가가 서로 의지하며 청정한 신행공동체를 유지하는 탁발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어 진행된 불상 재현 행렬에서는 태국 북동부 농카이 지역에서 신앙되는 평화와 복덕, 보호의 상징인 루앙포 프라싸이 불상이 등장해 참석자들이 꽃과 공양물을 올리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 평안을 기원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물 축제에서는 루앙포 프라싸이 불상 행렬이 경내를 돌며 참가자들의 축원을 받았다. 재한 태국 교민들과 한국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새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했고, 태국 전통 공연도 함께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70여 종의 태국 전통 음식과 간식, 음료가 마련돼 참석자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며 태국의 음식문화와 공동체 정신,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지 찌라삭 스님은 “송끄란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의 가치를 되새기는 태국 불교의 중요한 전통 명절”이라며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 불자들과 함께 불교적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여래종, 인왕 대종사 ‘사리보탑’ 제막

탄생 100주년·원적 10주기
명안 스님 “다보탑 본떠 건립”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6월 7일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연화경 인왕 대승정 연화 사리보탑 제막식 및 여래종 60년 중흥 종사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래종의 개산창종조인 인왕 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이자 열반 10주기를 맞아 마련됐다.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사리보탑 건립은 대약사사 주지 혜안 스님이 지난 3월부터 직접 석축 밑에 돌담을 세우고 작업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은 원력의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보탑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 “형태는 불국사 다보탑을 본떴으며 높이는 7m에 달한다”며 “이번 불사는 인왕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4개월 여에 걸쳐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이 혼연일체가 돼 준 비한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은 “사리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 정신, 자비와 지혜의 공덕을 후세에 전하는 살아있는 법당이며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며 성스러운 불사의 원만 성취를 찬탄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인왕 대종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렸다. 홍파 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옥천 대약사사를 창건하고 대가람을 일궈 중생 구제의 큰 원력을 세우셨다”며 “그 원력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미얀마와 스리랑카 등 해외로 뻗어나가 세계 평화와 불교 융성의 든든한 주춧돌이 됐다”고 상찬했다.

여래종 개산창종조 인왕 대종사는 1987년 한국불교여래종을 창종하고 1995년 총본산 대약사사를 창건했다. 스리랑카 불교최고승계 승왕에 오르는 등 평생을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화에 헌신했다.

노덕현 기자

황룡사 9층 목탑 비밀, 1300년 만에 풀리다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지 발굴 50주년 특별전

10월 11일까지 특별전시관서
황룡사 목탑 사리장엄구 등
핵심유물 117건 322점 공개
'찰주본기' 銘 금동사리함서
제작 장인 4명 이름 첫 확인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신라 최대 사찰이자 호국불교의 상징인 황룡사 9층 목탑에 봉안됐던 부처님 사리와 사리장엄구의 비밀이 발굴 50주년을 맞아 공개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은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皇龍奉佛)'를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황룡사 목탑 심초석 사리공과 주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를 중심으로 신라인들이 사리를 어떻게 봉안하고 장엄했는지를 조명한다. 황룡사는 신라 왕실이 불교를 통해 국가 질서와 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중심 사찰로, 9층 목탑은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전시에는 황룡사 목탑 사리공 출토 금동 사리함을 비롯해 보물인 '황룡사 찰주본기' 명문 금동 사리함, '중화 3년' 명문 금동 사리기 등 핵심 유물이 공개된다. 또한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납석제 사리호와 해인사 길상탑 탑지석 및 소탑 등 총 117건 322점의 문화유산이 한자리에 선보인다.

전시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사리 신앙과 목탑'에서는 창건 당시 봉안된 사리장엄구를 통해 사리 신앙의 시작과 호국 상징물로서의 9층 목탑의 의미를 살핀다. 2부 '사리의 재봉안'은 경문왕 대 목탑 중수 과정을 조명하며 기존 사리에 새로운 사리와 법사리(경전), 공양물이 추가로 봉안되는 의식 과정을 다룬다. 3부 '사리장엄의 확산'에서는 황룡사 이후 통일신라 후기 여러 사찰로 확산된 사리장엄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연구 성과를 '9층탑의 9가지 이야기(Nine-story Pagoda, Nine Stories)'라는 주제로 소개하는 데 있다. 연구진은 사리공 전체가 금동판으로 장엄돼 하나의 거대한 사리합처럼 조성됐음을 확인했으며, 금동 사리함 측판의 원래 위치와 초창기 구조를 새롭게 밝혀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皇龍奉佛)'를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제법인연생(諸法因緣生)'이라는 연기법송 문구가 새겨진 은제판과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

또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금은고좌'가 금·은제 연꽃 모양 받침이라는 사실을 규명했으며,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에 법사리가 봉안된 방식도 새롭게 밝혀냈다. 정밀 조사 과정에서는 사리기 내부에 '제법인연생(諸法因緣生)'이라는 연기법송 문구가 새겨진 은제판이 설치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성과는 보물 '황룡사 찰주본기' 명문 금동 사리함에서 제작 장인들의 이름이 새롭게 확인된 점이다.

특히 학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보물 '황룡사 찰주본기' 금동 사리함의 뚜껑과 바닥 편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름들이다. 금동 사리함에 대한 정밀 보존처리 과정에서 판독된 김충(金忠), 연장(連長), 청선(淸宣), 연창(連昌) 등 4명의 이름은 당대 사리함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장인 또는 작업자들의 실명으로 추정돼, 1300년 전 통일신라 금속공예 제작체계와 불사 참여 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황룡사 찰주본기'는 경문왕 12년(872) 목탑 중수 당시 제작된 금동 사리함에 새겨진 기록으로, 목탑 창건 배경과 중수 과정, 불사 참여 인물, 새롭게 봉안된 사리와 공양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덕 국립경주박물관장은 "황룡사 9층 목탑은 역사적으로 다섯 차례 벼락을 맞아 중수가 이뤄졌다"며 "경문왕이 목탑을 중수하면서 기존 사리장엄을 확인하고 새로운 금동 사리함에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찰주본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찰주본기는 단순한 중수 기록을 넘어 황룡사 목탑의 역사와 신앙적 의미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불교 문화유산 기록물"이라며 "사리 봉안을 통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려 했던 신라 왕실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관장은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 축적된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황룡사 목탑 가장 깊은 곳에 담겼던 신라인들의 염원과 불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부산 중앙성당 자리가 원래 사찰이었다고?"

6월 13일, 통도사 감로당서
적산사찰 실태 첫 학술대회
부산 73곳 중 불교 환수 2곳
통영 · 진해 사찰은 성당으로
마산 사찰은 방송국 · 고아원
성파 대종사 "관련 연구 시급"

부산 주교좌 중앙성당과 수정성당, 아동복지시설 새들원 자리가 본래 사찰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일제강점기 부산 곳곳에 세워졌던 일본 사찰, 이른바 '적산사찰(敵産寺刹)'이야기다. 해방 직후 이 사찰들의 대다수가 미 군사정부의 편향적인 정책에 의해 타 종교 시설이나 개인 소유로 탈바꿈한 뼈아픈 역사가 통도사가 개최한 학술대회를 통해 상세히 밝혀졌다.

재단법인 성파선예연구원과 한국근대불교연구회는 6월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감로당에서 '해방 이후 부산·울산·경남 적산사찰의 변천과 현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단과 지역을 넘어 적산사찰의 귀속 과정을 관보와 토지대장 등 1차 사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추적한 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부산 지역의 구체적인 적산사찰 유실 실태가 낱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문혜진 부산대 연구교수는 '부산시 일본불교 적산 연구' 발제에서 해방 후 부산에 남겨진 일본 사찰 73개소 중 추적이 가능한 40개소의 귀속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유화 및 민간화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와 개신교 등 기독교계 시설이 12%를 차지했다.


재단법인 성파선예연구원과 한국근대불교연구회는 6월 13일 통도사에서 '해방 이후 부산 · 울산 · 경남 적산사찰의 변천과 현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광식 전 특임교수, 영일 스님, 인산 지준 대종사, 주지 현덕 스님, 수좌 명신 스님, 종정 성파 대종사, 연산 스님, 한동민 관장, 문혜진 교수, 제점숙 교수, 이성수 동국대 강사.

구체적으로 정토종 지은사 터에는 천주교부산교구 주교좌 중앙성당이 들어섰고, 진종본원사파 고관포교소 자리는 수정성당으로 바뀌었다. 진언종지산파 금강사는 기독교 아동복지재단인 새들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반면 한국 불교계가 정식으로 불하받은 사례는 동본원사 부산별원이었던 대각사와 조동종 부산총천사분교소였던 반야사 단 2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성수 동국대 강사(불교신문 기자)는 '경남 남동부 적산사찰 연구'를 통해 통영과 진해를 비롯해 사천, 삼천포, 밀양, 삼랑진 지역 곳곳의 적산사찰 귀속 과정을 추적했다.

이 강사는 미군 군종 신부인 '드레크'가 통영 명증사와 진해 안국사를 가톨릭 성당으로 전환하는 데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학술대회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학자들의 뼈아픈 자성과 심층 연구를 촉구했다.

성파 스님은 "해방 이후 4년에 걸친 미군정 시기, 불교계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사찰관리법' 등으로 큰 억압을 받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막대한 사찰과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수난을 겪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불교계가 겪은 굴곡진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알리고 근현대 불교사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임강사 금비라합창단 제1회 창단 기념연주회

6월 26일 영주시민회관서

안동 임강사(주지 지현 스님)의 '금비라합창단'이 창단 기념 공연을 연다.

임강사 금비라합창단은 "오는 6월 26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창단 기념연주회 연다"고 6월 15일 밝혔다.

'금비라'는 불법을 수호하는 야차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음악을 통해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단원들의 서원이 담겼다. 단원들은 이번 첫 무대를 위해 지난 1년간 정기 연습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왔다.

공연은 총 3부에 걸쳐 진행되며 금비라합창단은 찬불가 '꽃 피울 때까지', '나는 한송이 꽃이 되어' 등을 비롯해 '서울탱고' '해뜰날' 등 가요를 선보인다. 또 성악가 황상미와 임강사 어린이법회 부모로 구성된 임강사랑밴드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반가사유상' 강좌

7월 1~15일 매주 수요일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주형)에서는 "7월 1~15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026년 원효학당 두 번째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좌 주제는 '불교에서의 사유와 이미지: 반가사유상의 상징과 의미'이며 강사는 한국불교연구원장인 이주형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제1강은 '고뇌와 사유'를 주제로 우리는 왜 반가사유상에 매료되고 인도에서 사유상은 어떤 의미로 창안됐는지를 살피며, 제2강은 '수행의 계위'를 통해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이르기까지 불교도들은 사유상을 어떤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활용했는지를 조명한다. '사유와 공감'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3강에서는 삼국시대 말부터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유행한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다룬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구도회원은 5만원이다.

신중일 기자

인왕 대종사 10주기 다례재 및 사리보탑 제막식 원만 회향

감사드립니다.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으로 6월 7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연화경 인왕 대승정 연화 사리보탑 제막식 및 여래종 60년 중흥 종사 다례법회〉를 여법하게 마쳤습니다.

인왕 대종사님의 탄생 100주년과 원적 10주기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종단의 대덕 큰스님들과 내외 귀빈, 그리고 온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정성을 받들어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70(2026)년 6월 7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전종도일동 합장



‘금강경’, 불화로 담아내다

무우수갤러리, 장혜경 개인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금강 같은 지혜 화폭에 구현
작가의 수행 성찰 결실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장혜경 작가의 작품 ‘금강경을 설하다’.

대승불교 핵심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은 집착을 내려놓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경전으로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금강경〉에 담긴 가르침을 불화로 구현한 전시가 열린다.

서울 인사동 무우수갤러리는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장혜경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 금강경을 설하다’를 개최한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 불화로 풀어낸 작업들을 선보이는 장혜경 작가는 오랜 시간 경전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며 쌓아온 수행과 성찰의 결실을 이번 전시에 담아낸다.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단순한 창작 행위가 아니다. 붓을 들고 색을 얹는 매 순간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추는 수행의 시간이며, 그 과정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작가는 경전의 가르침처럼,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사구게(四句偈)’ 하나를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뜻을 받들어 붓 끝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한다.

장 작가의 작품은 전통 불화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채도와 명도를 높인 밝고 경쾌한 색채와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표정을 통해 현대적 감각을 더해 눈길을 끈다. 주요 출품작들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祇園精舍)에서 〈금강경〉을 설법하시는 장면을 중심 도상으로 삼는다. ‘꽃비 내리다’는 〈금강경〉 설법 후 꽃비가 내렸다는 전승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법문을 듣는 순간 가릉빈가(迦陵頻伽)가 춤추고 천녀들이 노래하며 제자들이 찬탄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꽃비처럼 펼쳐진다.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금강경〉의 핵심인 ‘금강(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주제로, 설법을 듣는 불제자들의 금강석 같은 환희심을 화폭에 담아낸다.

장 작가는 “작품은 경외심 속에서도 친근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전달하려 했다”면서 “제 작품을 보는 순간 관람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금강경〉의 가르침이 마음 깊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 작가는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불교미술협회 및 미르예술협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 불화 양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불화를 선보여 왔으며, 2023년 제8회 천태예술공모대전 특선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한벽원미술관·한국미술관 등 주요 기관에서의 단체전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무우수갤러리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화사하고 환희로운 불화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람료 무료.

올해도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

7~8월 총 11회차 진행
명상, 서핑, 요가 등 체험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 모습.
사진 제공=낙산사

관음성지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의 여름 명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서핑 템플스테이’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양양 낙산사는 “오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총 11회차에 걸쳐 ‘여름특집 서핑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서핑 템플스테이’는 양양의 대표적인 해변이자 대한민국 서핑의 메카인 ‘서피비치’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기획된 낙산사의 여름 시즌 대표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와 해양 레포츠인 서핑을 명상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이색적인 구성으로, 매년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MZ세대를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다를 마주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파도명상’과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심신을 이완시키는 ‘소리명상’, 요가와 절운동을 접목한 ‘요가형108배(혹은 108배 염주 꿰기)’, 내 몸을 깨우는 ‘모닝요가’, 고민과 궁금증을 스님께 물어보는 ‘즉문즉설’ 등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깊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서핑 강습이 끝난 후에는 낙산사에서 직접 정성껏 준비한 ‘사찰식 비빔밥’을 해변에서 먹는 특별한 공양 시간이 마련된다.

서핑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라며 “천년의 역사를 지닌 낙산사에서 진정한 휴식과 명상을 경험하고, 서핑으로 활기찬 에너지를 채워가는 특별한 여름휴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름특집 서핑 템플스테이’의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낙산사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https://naksansa.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㊺ 삼일수심 천재보(三日修心 千載寶)

누가 많이 웃고 있는가?

三 日 修 心 千 載 寶

끝없는 탐욕이 가져오는 인생의 허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당나라의 한 젊은이 노생은 부귀영화를 꿈꾸며 한단의 주막에서 도사 여옹이 건넨 청자 베개를 베고 잠이 든다. 꿈속에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재물을 쌓는다.

마침내 권력의 정점인 재상의 자리에 올라 50년 동안 천하를 호령한다. 그러나 팔십 노인이 되어 숨을 거두는 순간, 그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한다. 주막 주인이 불에 올려놓은 기장밥이 아직 아직 채 익지도 않은 것이다. 50년에 걸친 탐욕과 부귀영화는 한 그릇의 밥이 익는 동안 꾸었던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았다. ‘한단지몽(邯鄲之夢)’의 일화는 영원할 것 같던 물질적 집착이 결국 한 순간의 물거품에 불과함을 일깨워 준다.

반면 올바른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유쾌한 일화도 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안자의 마부는 당대 최고 권력자의 마차를 몬다는 사실만으로 늘 우쭐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다녔다.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퇴근한 남편에게 뜻밖의 말을 꺼낸다.

“오늘 보니 안자 님은 비록 키는 작으셔도 온 나라의 존경을 받으며 늘 겸손하시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그분의 마부일 뿐이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양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만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이혼해 주세요.”

아내의 날카로운 한마디는 마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허세와 교만을 내려놓았다. 소박하고 정직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며 아내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이, 그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세속의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은 순간, 그의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한단지몽의 허망함과 안자 마부의 깨달음은 재물과 명예보다 바르게 닦은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고려 말 야운 스님은 〈초발심자경문〉 ‘자경문’에서 이렇게 경책하신다.

“올 때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느니라. 만 가지를 다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지은 업만이 몸을 따를 뿐이니라.”

또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 년의 보배요, 백 년 동안 탐해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니라(三日修心 千載寶 百年貪物 一朝塵)”라는 명구도 남기셨다.

성공 신화의 높은 탑을 쌓느라 분주한 오늘, 한 시인의 짧은 시구가 문득 떠오른다.

저녁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나태주 〈행복〉 전문–

〈화순 불암사 주지〉

‘노래하는 풍경 2집’ 발매

풍경소리, 신작 찬불가 8곡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 이하 풍경소리)’가 여름을 맞아 새로운 프로젝트의 창작 찬불가 앨범 ‘노래하는 풍경 2집’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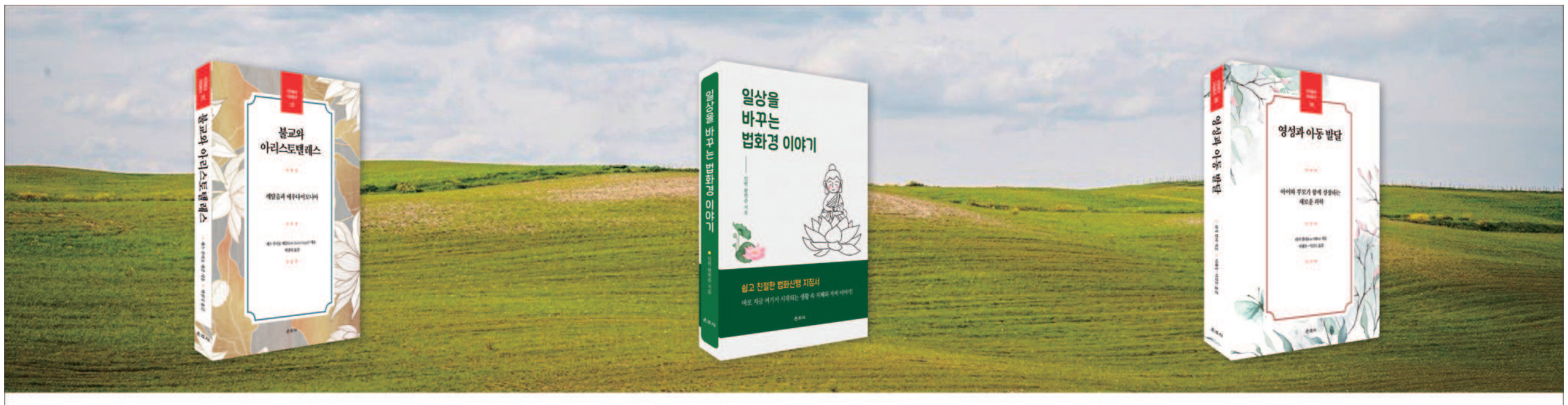
‘노래하는 풍경 2집’은 지난 풍경소리 작품집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장르의 신작 창작 찬불가 8곡이 수록됐다.

1번 트랙 ‘아미타불’은 오랫동안 불교음악계에서 활동한 강영화 작곡가의 작품으로 바리톤 김재일과 불교계 유일 남성합창단 ‘선불합장단’이 함께 노래했다. 풍경소리 작품집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찬불가로는 최미선 작곡가의 ‘미소’, ‘가만히 귀 기울이면’이 수록됐다.

풍경소리와 불교음악계의 큰 스승인 덕신 스님이 작사가로 참여해 ‘자등명법등명(정유탁 작곡)’, ‘해탈이어라(이종만 작곡)’ 등을 제작했으며 가요 ‘타타타’의 불자 가수 김국화 씨가 참여해 트로트 찬불가 ‘실타래 인생(차영화 작사, 이종만 작곡)’을 직접 불러 눈길을 끈다.

이종만 풍경소리 대표는 “이번에 발표하는 ‘노래하는 풍경 2집’은 다양한 장르의 찬불가 창작을 통해 대중화에 힘썼다”면서 “불교음악 대중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지혜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불교적 ‘깨달음’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모색!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신국판/312쪽/값 22,000원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과학!
영성과 아동발달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입증된 영성이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다.
리사 밀러 지음, 이혜숙 · 이선모 옮김/신국판/528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7~6/2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2	불교성전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3	정토 수행 지침서 1	영화 / 조소영	도서출판 운주사
4	나무아미타불 마음수업	페이웅	향기책방
5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지안	불광출판사
6	행복(개정판)	법륜	정토
7	DIARY OF A KOREAN ZEN MONK(선방일기)	VEN. JIHEO	불광출판사
8	법구경(불교경전15)	석지현 역	민족사
9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개정판)	퇴옹 성철	장경각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2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폴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3	요가 수트라	B.K.S.아헹가/현천	선요가
4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5	AI도 훔쳐보는 불교문답	정우 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6	법구경 이야기 (1)	무념,응진 역	옛길
7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일현 함현준	운주사
8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엮음	불광
9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세스 주이호 세갈	운주사
10	어서 오세요 희망약국입니다	임종섭	모과나무

가짜 휴식의 시대 "쉼마저 쉬어라"



휴휴선
월암 스님 지음
담앤북스
2만5000원

경전·어록에서 찾은 '쉼'의 철학
몽산 선사 '휴휴선' 현대적 변용



월암 스님은 〈휴휴선〉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집착과 아집마저 내려놓는 '궁극의 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쉼'은 뒤처짐이자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휴식마저 더 높은 성취를 위한 효율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원나라 몽산 덕이(1231~1308) 선사는 말한다. "쉬어라, 그리고 그 쉼마저 쉬어라."

앎에 대한 집착과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온전히 멈출 때 번뇌는 사라지고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몽산 선사는 이를 '휴휴(休休, 쉬고 또 쉼)'라 불렀다. 몸의 휴식에 머물지 않고 집착과 아집마저 내려놓는 궁극의 쉼이다.

〈휴휴선〉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월암 스님(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이 몽산 선사의 휴휴선을 중심으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전해온 '쉼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책이다.

월암 스님은 '피로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선가(禪家)에 면면히 전승되어 온 휴(休)의 사상과 실천 속에 우리를 안심시킬 가장 명쾌하고 따스한 해답이 숨 쉬고 있다"고 말한다. 휴휴란 단순히 고된 일과를 마친 뒤 몸을 눕히는 휴식이 아니다. 세속적 욕망과 성취에 대한 미련,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몸짓을 완전히 내려놓는 '철저한 멈춤'이다. 스님은 "진정한 쉼은 바쁜 일상에 파묻혀 까맣게 잊고 지내던 '참나'의 얼굴을 다시 찾는 가장 눈부신 본래성의 회복"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휴휴선의 연원을 탐색한다.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조사 어록에 설해진 방하착(放下著), 휴헐(休歇), 휴한(休閑)의 가르침을 통해 '쉼'의 사상을 갈무리한다. 2장은 보조 지눌과 진각 혜심 선사가 설한 휴헐법문과 그 수증(修證)의 방편을 소개한다. 한국 선불교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쉼의 수행법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은 이 책의 핵심이라 할 몽산 선사의 휴휴 종지와 실천을 다룬다. 몽산 선사의 행장 속에 깃든 휴휴 정신을 살피고, '휴휴암명'과 '휴휴암좌선문'에 새겨진 가르침을 드러낸다.

4장은 몽산의 종지를 이어받은 고려 말 선사들의 궤적을 좇는다. 만항·혼구·천희 선사가 어떻게 고려불교 속에 맹렬한 휴헐의 수행을 구현했는지를 살핀다.

5장에서는 명나라 말 감산 덕천 선사의 선사상 속에 흐르는 휴헐의 수증론을 〈감산노인몽유집〉을 통해 살피고, 6장에서는 명나라 말 사대부 신시행이 보여준 휴휴 정신의 변용을 다룬다. 신시행은 몽산 선사의 휴휴선을 유가적 삶의 지혜와 결합해 세간의 언어로 풀어냈다.

월암 스님은 "명상이 스트레스 완화나 심리적 위안이라는 '증상 치료'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면, 휴휴선은 내가 단단히 쥐고 있는 고통의 뿌리, 즉 '나라는 아집'과 '대상을 향한 맹목적 집착' 자체를 단박에 쾌유시키는 근원적 심리 치유이자 생사 해탈"이라고 말한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생각이 길이다2·3
용타 스님 지음 / 민족사 / 각 1만5000원

짧은 글에 담아낸 '생각 사용법'
불교 사상 바탕, 삶의 방식 제시

"본래 부처이므로 지금 부처할 수 있다."

〈생각이 길이다〉 2권과 3권은 불교 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을 창시하고 오랫동안 지도해 온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이 전하는 '생각 사용법'에 관한 책이다. 용타 스님이 수행 현장에서 길어 올린 사유가 각각 108개의 짧은 글로 담겼다.

용타 스님은 행복의 출발점을 '생각 잘 하기'에서 찾는다. 같은 현실을 마주해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평온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님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바람직한 생각을 하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과 해탈을 주관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2권은 무아(無我), 연기(緣起), 공(空), 즉심즉불(卽心卽佛) 등 불교의 핵심 사상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괴로움의 근원을 탐구한다. 특히 '실체사고', '이중화살', '무공덕' 같은 독창적인 개념은 익숙한 불교 교리를 재해석해 독자가 자신의 마음 구조를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든다.

3권은 깨달음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의 문제에 집중한다. 감사와 공감, 표현, 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통해 삶의 분위기와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여수령 기자

차 한 잔에 담긴 성찰과 비움



차의 길 마음의 길
김대철 지음
들메나무
2만5000원



6월 11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이사장.

40여 년간 한국 차문화 대중화와 인문학적 확산에 노력해 온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이사장의 다섯 번째 저서 〈차의 길 마음의 길〉이 출간됐다.

6월 11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대철 이사장은 "차 생활을 통한 심외무차(心外無茶)의 길을 걸으며 틈틈이 썼던 글들을 모아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찾는 길을 열어보고자 이번 책을 내게 됐다"며 "차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책은 저자가 찻자리를 지키며 남긴 성찰의 기록이자, 다선일미의 정신을 현대 인문학 언어로 풀어낸 명상록이다. 다도의 역사나 형식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차 한잔을 통해 일상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맑은 성품을 회복하는 '마음공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차문화 대중화 앞장 40년
"마음 정돈하는 수양 도구"

저자는 책을 통해 차를 마시는 행위가 물리적인 갈증 해소가 아니라, 정신을 일깨우고 흩어진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수양의 도구임을 강조한다. 특히 뜨거운 물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은은한 향을 사방에 퍼뜨리는 찻잎의 성질을 인간 삶의 수련 과정에 비유한다. 다도는 이론이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며, 오직 차를 내리고 마시는 실천적 경험과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태도 속에서 완성된다고 설파했다.

신중식 목사(호남신학대학교 전 교수)는 서평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도자들이 평생 묻고 찾은 화두인 '마음공부'의 진수가 담긴 책"이라며 "차인이라면 누구나 머리맡에 두고 묵상해야 할 인생의 양서"라고 말했다.

김대철 이사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대중 교육과 영남권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며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 온 전통문화운동가이자 다학(茶學) 연구가다.

1982년 부산에 '여천차문화원'을 설립하고 대구와 울산, 경주 등에 지원을 세워 인문학 교육을 이어왔다. 또 해인사 불교대학, 순천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의 강단에서 다도학과 동양철학을 강의하며 다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불국사 석굴암 헌공다례 총감독과 경주 남산 삼화령 헌다식 봉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부산국제차문화대전과 가야차문화한마당축제 등의 위원장직을 두루 거쳤다. 〈다도와 인문학 산책〉, 〈인생이 한 잔의 차와 같다면〉, 〈우리 차 문화〉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신라 풍류사상과 다도 정신을 학술적으로 고증하는 연구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 다산차문화상 학술상과 초의차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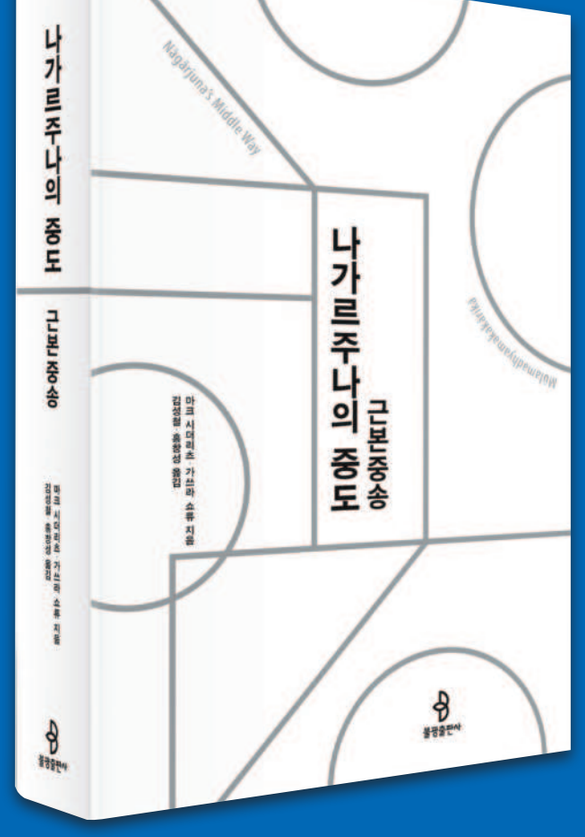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철학사의 중심에 선 단 하나의 책!

나가르주나(용수)의 사상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낸 국제 불교학계 공인 결정판

나가르주나의 중도
근본중송

마크 시더리츠·가쓰라 쇼류 지음 | 김성철·홍창성 옮김
456쪽 | 32,000원



"전 세계가 찾아 읽는 『근본중송』 해설의 정점"

현대 불교철학계의 세계적인 두 거장
마크 시더리츠 · 가쓰라 쇼류 집필

✖

불교철학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두 석학
김성철 · 홍창성 완역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원류가 된
'공(空)'과 '중도(中道)'의 핵심을 읽다!

★★★ 불교철학을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책

★★★ 한 권의 책이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이 그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뭉밀이’ 현밀 스님의 수행 여정



성불 한번 해볼까
현밀 스님
휴머니스트
1만7000원

‘취업 대신 출가’ 번뇌 퇴치 수행기
번뇌와 하심 오간 에피소드 40편
뭉밀이 삽화·스님 법담 등 수록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본지에 ‘뭉밀이 佛스타툰’을 2년간 게재하며 불교 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온 현밀 스님이 최근 신간 〈성불 한번 해볼까〉를 펴냈다.

이 책은 조계종 불교 크리에이터 현밀 스님(청도군 운문사 포교팀장)이 출가부터 행자 시절, 승가대학을 거쳐 스님이 되기까지 10년여 수행 여정을 풀어낸 에세이다. ‘취업 대신 출가한 요즘 스님의 번뇌 퇴치 수행기’란 부제처럼 “출가나 해라”는 한마디에 ‘취업 대신 출가’를 선택한 90년대생 비구니 현밀 스님의 ‘우당탕’ 수행기다. 마치 ‘미생’의 불교 버전과도 같이 서툴지만 치열한 성장기를 그리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 수행이라는 낯선 길을 걸으며 흔들리고 비워내며 마음의 평온을 얻어가는 출가 수행 에피소드 40편을 담았다.

책에는 스님은 늦잠을 자서 새벽 예불에 지각하거나 밥물 조절을 잘못해 진밥과 된밥을 공양 올리기도 하고, 도량에서 뛰다 선배 스님에게 걸려 혼난 일 등 신입 사원의 분투와 닮은 에피소드들이 펼쳐진다. 하지만 수없이 번뇌와 하심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도 ‘가장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낸 스님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다.

현밀 스님은 예불에 지각했던 날을 떠올리며 “매일같이 이겨내고 넘어서야 했던 건 시간이나 잠이 아닌, 불안과 강박이었다”고 고백하며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여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또 밥물 조절에 실패한 일화를 통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밥 한 톨을 지을 때도 사심이 아닌 모두의 평온을 발원하는 공심을 담는다면, 그 순간이 수행’이라는 깨달음을 전한다. 아울러 행자 시절을 회상하며, “수행의 길은 어디에도 끝이 없고 진짜 깨달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걷는 가운데 문득 찾아온다는 것”이라 말하며 “나의 수행이란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는 용기를 갈고 닦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삽화 제공=휴머니스트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경험은 〈법구경〉, 〈금강경오가해〉, 〈증일아함경〉 등 여러 경전의 가르침으로 풀이한다. 또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구체적인 생활 수행 가이드를 스님만의 깨달음을 녹여낸 법담으로 제시한다.

스님은 법담을 통해 “수행은 나 자신을 먼저 다정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괜찮다. 스스로를 살피고 바르게 이끌라는 부처님 말씀은 완벽해지려 나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툰 나를 품으며 정진하라는 가르침이었다”고 설명한다. 또 ‘수행은 평탄한 길을 걷는 일이 아니라, 뜻밖의 걸림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마음을 세우는 일’, ‘수행자는 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이상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 등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깨달음을 전한다.

책은 불교 초심자들을 위해 생소하고 어려운 불교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해 별도로 게재했다. 또 각 장마다 뭉게구름을 닮은 복스러운 볼의 동자승 캐릭터 ‘뭉밀이’를 등장시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현밀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제가 겪은 서툶과 흔들림, 그리고 작은 깨달음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조용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의 마음에도 뭉게구름이 떠올라 날마다 몽글몽글한 행복이 피어나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이 책은 좌충우돌하는 사회인, 소란한 기대에 부응하느라 방전 직전인 현대인,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애쓰다 넘어지고 주저앉는 이들에게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격려를 전한다.

15년 차 약사의 ‘동네약국 사용 설명서’



어서 오세요 희망약국입니다
임종섭
모과나무
2만2000원

본지 연재 임종섭 약사의 신간
상담 사례 기반 건강 에세이

약국에서 약이나 영양제를 살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아픈 몸의 증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약의 종류는 많고 이름은 어려우며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데 올바른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약국 활용법’을 담은 신간이 나왔다. 본지에 ‘동네약국 사용 설명서’를 연재 중인 임종섭 울산 희망약국 대표 약사가 지난해부터 본지에 게재해 온 원고를 수정·보완해 펴낸 생활 건강 에세이 〈어서 오세요 희망약국입니다〉가 그것이다.

기존 연재 글보다 상세한 내용을 더해 전문성을 한층 높였고, 불교 관련 예시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 사례로 수정해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여겨볼 만한 변화다.

이 책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약국에서 약사에게 올바르게 질문하고 적절한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15년 차 베테랑 약사인 저자가 약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약과 영양제, 상비약, 상처 관리, 만성 질환약 등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해소한다.

‘약값은 왜 다르나’,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 등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설명을 듣기 어려웠던 상황들도 필수 예제처럼 다루고,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약학 지식과 약의 처방 의도 등을 모범 답안처럼 제시한다.

조제실 안의 긴박한 이야기부터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까지, 약국을 200% 활용하는 법도 담았다. 여기에 SNS 속 가짜 건강 정보나 광고성 콘텐츠, 창고형 약국의 등장 등 오늘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의료 현실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또 각 1인 가구, 노인 가구, 영유아 가구 등 다양한 상황의 맞춤형 가정상비약 리스트도 소개한다.

책은 총 5부에 걸쳐 약에 대한 기본 지식, 상비약의 특징과 고르는 법, 시기별로 필요한 영양제, 약의 사용법과 선택법, 좋은 약국을 고르는 안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무엇보다 웹 소설 작가로도 활동 중인 저자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전문 약학 지식을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시선으로 친근하게 풀어내며 독자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간다.

이 책은 약과 영양제 선택에 확신이 없던 독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강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배희정 기자

부처님의 직장인 마음처방전



부처님 말씀대로 회사생활
댄 지그몬드 지음
최영열 옮김
자음과모음
1만6800원

일하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자신의 업무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받고 지쳐가는 이들도 많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쁨’을 자신의 가치로 착각하다 진짜 ‘나’를 잃고 번아웃에 빠지기도 한다.

신간 〈부처님 말씀대로 회사생활〉은 바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현대 직장인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일터로 가져온 마음 처방전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데이터 과학자이자 선불교 승려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저자가 불교의 지혜를 기업 환경에 접목한 실용서다. 전작 〈부처의 식단〉으로 주목받은 저자가 자신의 기업 근무 경험과 불교 지혜를 엮어 펴냈다.

직장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처법 제시
‘나’는 없고 ‘일’만 남아, ‘마음챙김’ 要

“불교의 지혜가 현대 노동 방식에 긴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집필 의도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종교적 색채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마음가짐에 적용해 지친 직장인들에게 위안을 준다.

저자에 따르면 부처님은 고통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과 맺는 우리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이에 저자는 자신을 직업과 동일시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갈망이나 인정 욕구 등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일과 가정 유지, 인간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좋아지며 이것이 중도의 가르침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다.

특히 책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와 중도에 이르는 여덟 개의 길 팔정도(八正道)에 주목한다. 그중에서도 팔정도의 핵심인 ‘마음챙김’이 직장 생활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마음챙김은 광범위한 산업과 직업 전반에 걸쳐 창의력, 혁신성, 회복력, 업무몰입도, 생산성 및 소통 기술을 크게 높이고, 동시에 직장 내 갈등, 결근율, 이직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한다.

저자는 직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법도 안내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에서는 방해 요소가 생기기 마련이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일어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직장 내 문제 해결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직장에서의 ‘힘든 하루’가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일종의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또 문제가 과하게 느껴질 때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동료를 믿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권한다. 나아가 의식적인 호흡 명상이 스트레스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높은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일하되, 명상과 숙면, 휴식을 취하고 신체 활동을 지속하라고 주문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건전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 역시 한 방법이다.

나아가 누군가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처님이라면 상대가 실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지 않게 할 것이며 매 순간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라고 덧붙인다.

결국 이 책은 일하는 것 자체가 곧 수행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며 불교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깨달음의 추구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일상과 일터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 업무에 파묻혀 삶의 균형을 잃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순 명쾌한 진리를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열심히 일하되 너무 오래 하진 마라. 진실을 말하라. 친절해져라.” 배희정 기자

세계적인 명상 열풍의 시대, 왜 한국 전통 ‘간화선’인가?

● 단박에 깨치는 최상승 수행 가이드 :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유위법(有爲法)의 명상을 넘어, 무명을 타파하는 무위법(無爲法) 선명상의 정수를 담았다.

●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언어 :
관념적이고 복잡한 이론을 걷어내고, 화두의 구조와 활구(活句) 의심의 메커니즘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명쾌하게 풀어냈다.

● 생생한 집중수행 실황과 인터뷰 :
불교신문 연재 글을 비롯해 오대산 집중수행 현장의 ‘탄지(彈指) 화두’ 지도법 실황과 세계적 학자들과의 깊이 있는 인터뷰를 수록했다.

『밀어 붙여라』 수불 대종사 지음 | 228쪽 | 18,000원
도서출판 해조음 02·2279·2343

감정 너울 잠재우고 마음의 고삐 쥐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⑫ 신구 관련·무관 탐진의 참회 대상과 방법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신구 관련 진, 욕망 좌절 시 성내는 마음
기억 떠올려 신구의 삼업 각각 참회해야

신구 무관 탐진, 고통 이끄는 마음속 원인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발생

배우자의 지나친 관심, 엄마의 자식 집착
폭력적인 게임·장난 속 분노도 참회 대상

신구 관련 진
참회 대상

신구 관련 진이란 오욕락과 같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나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성냄, 미움 등의 마음이다. 여기에는 시기나 질투도 포함되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해당된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짜증이나 신경질도 포함된다. 폭력이나 괴롭힘 등 신업의 살생과 구업에 해당되는 욕설과 악담 등은 주로 이 성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성내는 마음 때문에 큰 악업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화가 나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화를 내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매우 험상궂게 변하며, 또 소위 화병이라는 것에 걸려 고통을 받기도 한다.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신구 관련 탐진의 참회 방법

신업과 구업은 알기가 쉽지만 그 원인이 되는 의업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약간 어렵다. 그럴 때는 일단 신업과 구업을 참회하면서, 그 행위를 할 당시의 마음 상태에 탐이나 진이 분명히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탐과 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탐과 진 각각을 기억에 떠올려서 참회하면 된다. 탐진의 형태를 분명하게 파악할수록 참회가 더 잘 된다. 그 외의 사항은 신업과 구업의 참회 방법과 같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또 앞에 있던 컵을 상대를 향해 집어던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컵을 던진 행위는 신업(폭력)이고 욕설을 한 것은 구업이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화를 낸 것은 의업 중의 진(성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먼저 컵을 던진 사실을 기억에 떠올려서 신업을 참회하고, 다음에 욕설을 했던 것을 기억에 떠올려서 구업을 참회하고, 그다음에 화를 낸 마음을 떠올려서 의업인 진을 참회하는 것이다.

이때 신업·구업·의업이라는 참회 순서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동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참회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따로따로 참회해야 한다. 신구의 삼업은 업의 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간혹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의업만 참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참회가 아니다. 신업과 구업은 우리의 '몸'과 '입'에 배어 있는 악업의 습관이기 때문에, '마음'의 악습인 의업에 대한 참회만으로는 신업과 구업의 악습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신구 관련 탐진 참회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탐과 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신업과 구업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감정에 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사전에 조금씩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신구 무관 탐진

신구 무관 탐진은 신구 관련 탐진과 기본적으로 성질은 같다. 그러나 신업이나 구업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약한 반면 일어나는 빈도는 훨씬 잦다. 또한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구 관련 탐진보다 알기가 더 어렵다.

이 신구 무관 탐진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점점 쌓이면 그 힘이 강해져서 신구 관련 탐진이 되고, 이것이 신업과 구업을 짓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 악업의 과보를 받아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구 무관 탐진은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드는 마음속의 원인 중에서, 표면 의식에 가장 가까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신구 무관 탐진 참회를 익힐 때까지가 반야 참회의 첫 번째 고비이다.

참회 대상

• 신구 무관 탐

신구 무관 탐의 참회 대상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신구 관련 탐과 종류가 같다. 다만 음욕은 차이가 있다. 음욕은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대상을 직접 보거나 그림이나 사진·영상 등을 볼 때 일어나는 욕망이 해당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자신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거나 정도 이상의 짙은 화장을 할 때 그 마음이 탐에 해당된다. 혼자 상상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남녀 모두에 해당된다.

이 신구 무관 탐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과도한 욕망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다음과 같은 사례도 참회 대상이 된다.

첫째, 자기 자신이 직접 움직여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시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의 사업이 잘되기를 과도하게 바라는 경우, 자신이 재물에 대해 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또 부모로서 자식이 공부를 잘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경우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은 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부부간에 서로에게 애정의 표현으로 관심을 표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출근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시간마다 전화하고 확인하는 경우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부인이 잠깐이라도 집을 비우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으로 전화해서 부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큰 자식을 일일이 간섭하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엄마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탐에 해당한다. 자식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스님이 되려고 출가할 때도 따라오는 엄마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탐이 강해진 상태를 집착이라고 한다. 집착이 강해지면 집착하는 본인이 괴로운 것은 물론이고, 그 집착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도 큰 괴로움을 겪게 되며, 심할 경우에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엄마의 집착에 의한 과잉보호로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심각한 상태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자들은 탐에 대해 바르게 알고 참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구 무관 진

신구 무관 진의 참회 대상은 신구 관련 진과 같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냄, 미움, 짜증, 시기, 질투 등이다. 신업과 구업을 짓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종류는 같다. 그런데 신구 무관 진에도 간과하기 쉬운 참회 대상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도 휴대폰이나 PC 등으로 폭력적인 게임을 해서 죽이거나 폭행을 하거나, 분노 또는 적대적인 감정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때 일으킨 감정도 참회 대상에 포함된다. 장난이나 연극으로 화를 내더라도 마음속에서 실제로 화가 났다면 역시 참회 대상이다. 실제 상황이든 가상이든 간에 화가 났다면 그것은 악업이기 때문이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사찰운영 및 신세대 포교를 위한 소통이 필요할 때
신세대와 소통하는 타로강의 신수와 인생 상담
수강자격 : 스님. 법사. 포교사
수강시간 : 기초 2시간 2회
타로등록 : ISBN 979-11-86237-98-4
수강비용 : 자료 책 자격증 최소비용
수강신청 : 승려증(복사)1. 사진1
지급품목 : 책1. 카드5. 자격증. 미국승려증(정식)
신청방법 : 010.7187.1947
강의강사 : 유지안 스님(미국시민권 법납54)


동양 음양오행 원리 적용 타로카드

서울 강남구 광평로295 사이룩스 동관306호
010.7187.1947
지안스님 회향을 준비하며 스님들께 재능기부

불교, ‘호감 시대’ 넘어 ‘신행 시대’로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1. [프롤로그] ‘힙 불교’의 확장

불교는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종교가 아니다. 현재 불교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문화이자 수행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불교를 향한 관심과 호감이 실제 신행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유행과 문화적 소비를 넘어 사찰 방문과 법회 참여, 신행 단체 활동, 새신도 등록 등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은 최근의 ‘힙한 불교’ 현상이 한국불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와 통계를 통해 진단하고자 한다. 사찰과 신행 단체의 변화, 새신도들의 요구와 특징, 청년층과 무종교인의 유입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사회적 호감이 생활불교와 신행 문화로 확장될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2~5일 열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불교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최근 한국불교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불교는 ‘오래된 종교’, ‘어렵고 낯선 가르침’, ‘어른들의 신앙’이라는 이미지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불교는 명상, 치유, 쉼, 전통문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언어를 통해 대중의 일상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마음을 내려놓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법회와 수행은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분위기만이 아니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2025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내국인 29만3721명, 외국인 5만5515명 등 총 34만92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보다 5.1%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참가층이다. 템플스테이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전통문화 체험이 아니다. 템플스테이 20·30대 참가자는 코로나 회복 초기인 2022년에는 8만5236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13만359명으로 늘었다. 20·30대 참가 비중도 2025년 기준 37.33%에 달한다. 올해 6월까지 이미 7만2000여 명의 20·30대 청년들이 템플스테이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단 차원에서 청년 대상 이벤트를 확대 운영 중”이라며 “2026년 6월 20·30대는 현재 전체 참가자의 41%에 달할 정도로 템플스테이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에 대한 호감은 도심형 축제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나흘 동안 25만명이 찾으며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다. 지난해 약 20만명보다 약 25%가량 늘어난 규모다. 관람객 구성도 의미심장하다. 올해 박람회 방문객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은 72%에 달했다. 2025년에도 20대와 30대 비중이 각각 37.2%, 36.2%로 합계 73.4%였다.

이는 불교가 ‘종교 내부의 언어’만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명상, 사찰음식, 불교 굿즈, 전통공예, 수행 콘텐츠,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를 접한다. 다시 말해 불교는 지금 ‘믿음의 대상’이기 이전에 ‘경험 가능한 문화’로 먼저 다가가고 있다. 이것이 최근 불교 호감 현상의 핵심이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출판계와 독서 지형에서도 포착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정보나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5년 공공도서관 대출 동향에 따르면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역부처의 말〉이 1만9889건 대출로 비문학 대출 3위에 올랐다. ‘불교’ 관련 도서 대출량도 2024년 22만9760건에서 2025년 26만4692건으로 1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10년 내 종교 서적이 비문학 분야 대출 상위 5위권에 진입한 첫 사례”라고 분석했다.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도 불교적 언어와 상징을 차용한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블랙핑크 제니는 2025년 솔로 앨범 수록곡 ‘ZEN’을 통해 ‘선(禪)’이라는 불교·명상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세계적 K팝 스타가 ‘젠’이라는 언어를 자기 서사의 핵심 키워드로 호출했다는 사실은 불교가 더 이상 낡은 종교적 기호가 아니라, 동시대 대중문화 속에서도 매력적인 감각과 세계관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르세라핌의 신곡 ‘BOOMPALA’ 역시 주목할 만하다. 멤버 허윤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곡의 영감을 〈반야심경〉에서 받았다고 했고 실제 가사들도 무상(無常), 공(空)을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노래의 세계관을 〈반야심경〉의 공 사상, 집착의 해체,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기 응시의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 철학은 K팝 안에서도 새로운 상상력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오늘의 청년세대에게 반드시 ‘종교적 소속’으로만 다가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들에게 불교는 때로 명상이고, 때로 디자인이며, 때로 음악과 퍼포먼스의 모티프다. 연꽃, 만다라, 합장, 참선, 공, 무아, 자비 같은 상징은 교리서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굿즈와 패션, 영상, 노래, SNS 콘텐츠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대학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학 불교동아리가 최근 청년 포교의 주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2025년 교수붓다회 전법회가 개최한 대학생 불교동아리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3년 전 60여 곳 수준이었던 불교동아리(각 대학 지회)가 올 3월 기준 120여 대학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사례는 보다 뚜렷하다.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은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중심이 돼 2024년부터 추진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동국대는 ‘대학 전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시행 초기 중앙동아리 ‘동불’ 회원이 168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서울·WISE캠퍼스 27개 동아리 7738명(서울 5152명·WISE캠 2440명·DUICA 146명)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회원 수 4506%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9월 개최된 영캠프에서는 서울·WISE캠퍼스 학생 6700명이 오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올해 1만명 수계 시대를 열겠다”는 게 동국대의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불교에 분명한 기회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을 찾고, 박람회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며, 불교 동아리와 독서를 통해 불교적 사유에 접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호감과 관심은 가능성일 뿐 귀의가 아니다. 현재 한국불교가 직면한 과제는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한다’는 호감이 신행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길을 놓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첫 신행 경험’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다. 많은 청년과 무종교인은 사찰을 좋아하지만 법회는 낯설어한다. 명상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불과 독경은 어렵게 느낀다. 불교 굿즈는 친근하지만 교리 공부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렇다면 사찰은 이들의 첫걸음을 받아낼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한다. 초심자를 위한 짧은 법회, 30분 명상회, 스님과의 차담, 불교 입문 강좌, 소모임, 사찰 봉사 프로그램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재 대중들은 불교를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에게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늘려 자연스럽게 사찰에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일반 시민과 불자 사이에 완충지대를 강화해 접촉면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과 무종교인들은 교리의 정답보다 삶의 해답을 묻는다는 점에서 포교의 언어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왜 괴로운지, 어떻게 마음을 볼 것인지, 타인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불교의 가르침이 삶에 어떤 힘이 되는지를 생활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불교 굿즈를 구매하고 템플스테이를 즐기는 젊은이들은 전통적 불교에 호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아니다. 이들은 불교의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편적인 이미지만 소비시키는 게 아닌 이들의 고민들을 생활 언어로 불교적 가르침에 맞춰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34만9236명(2025년)

20·30대 참가자 13만359명(37.33%)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가자
25만명

20·30대 참가자 비중 72%

대학 불교동아리
120여 개(3년간 2배 증가)

동국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27개 · 회원 7738명

템플스테이 지난해 최다 인원
20·30대 참가자 37%에 달해
박람회 관람객 72%, 20·30대
대학 불교동아리 3년간 2배↑
동국대 “올해 1만명 수계 목표”
호감은 가능성, 신행 이어져야
초심자 위한 ‘완충지대’ 필요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83호 | 14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원주
- 대지 : 1500평
- 법당 : 4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북대구
- 부지 : 250평
- 법당 : 50평, 요사 : 40평
- 주차10대
- 매가 : 1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토 지 경 매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94
- 임야 : 2093제곱미터
- 감정가액 : 2억원
- 2024타경 6235
- 매각회차 2회 / 매각기일 2026.6.8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최저매각가 : 1억 4000만원
- 굿당용 조성 토지, 미등기 건물 존재

문의 055-862-211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총 870평 중 답 50평, 나머지 대지매매
- 178평 건물 3동
- 가액 : 26억 (대출 13억 5천만원)
- 절, 굿당 하기 좋은 자리 천성산 앞 계곡 물 흘러갑니다

010-4735-8100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43평. 삼성각2평. 용왕각3평. 요사채1층38평 외 공양간30평. 2층 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등등

010-5002-7392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 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33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권리금 없음)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개인사유로 매매합니다.

광명선원 043-224~2474
010-3222-2474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 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 있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
- 토지140㎡, 건물146.62㎡, 1층73.31㎡ 2층 73.31㎡ • 매매 : 2억

010-9811-4877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7-5
- 옛집2동, 삼존불
- 대지 : 200평
- 가액 : 7천 2백만원

010-7795-9856

사 찰 안 내

- 위치 : 영광군 법성면 숲쟁이길 69 법성사
- 대지 : 약700평 전 약2300평 건물 150평

010-8730-3090

토굴 · 수련원 안내

- 위치 : 하동군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97-1(명동길35)
- 대지 : 76.5평 • 본건물 : 20.6평
- 내장 황토벽돌, 외장 이화벽돌, 천장 2중 편백나무시공 ★창고 8평 이화벽돌 ★주차장 8.6평 시멘트벽돌
- 건물구조 : 방3개(화장실 3개 각방), 거실겸 주방시설 윗층 법당11평 내장편백나무 ★신축 10년된 새 집 손 볼곳 없음.
- 마당, 금잔디, 조경완비, 지리산자락, 물 공기 청정지역
- 가액 : 1억4천만원

010-2766-10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사 찰 안 내

스님, 보살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 57-2번지
- 면적 : 2300평

010-7305-50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83호 | 15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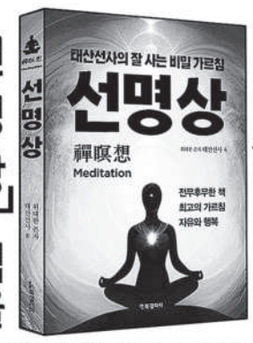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꼭 「선명상」 책을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비구, 비구니, 행자스님 모십니다

서울 서대문 안산 광명사
010-3758-8039
010-5211-995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바라·극락무 올려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성불사'에서는
조상천도 '독' 불공을 3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접수 기다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디지털 변화 맞설 AI 주권 확립해야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⑫ AI가 국경에 갇힌 날

美, 앤트로픽 최첨단 AI 모델 수출 통제
국가 안보상 이유, 서비스 중단 첫 사례
AI, '능력의 확장' 아닌 '빌려 쓰는 지능'
맹목 수용 · 거부 넘어 '디지털 중도' 필요
기술 종속 민낯 직시하고 위기 대비해야

사흘 만에 사라진 지능

발단은 평범한 기술 점검 한 건이었다. 지난 6월 11일 목요일 저녁, 아마존의 연구진은 며칠 전 앤트로픽(Anthropic)이 내놓은 최첨단 AI 모델 '페이블 5(Fable 5)'를 시험하다 그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길을 찾아냈다. 앤트로픽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최대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동반자로서, 그 빈틈을 직접 들여다보던 참이었다. 이른바 '탈옥(Jailbreak)'이다. 원래대로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했을 사이버 공격용 정보를, 모델은 순순히 토해냈다.

이튿날 아침, 아마존 최고경영자 앤디 재시(Andy Jassy)는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경고의 골자는 분명했다. 자사가 검증을 맡은 모델이 뚫린 이상, 이대로 두면 국가 안보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백악관은 지체하지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에게 위험을 통보했다.

이후 이 대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 고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내놓은 설명은 이렇다. 정부가 결함을 고치거나 모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아모데이는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라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문제의 우회는 이미 알려진 사소한 취약점 몇 개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색스의 시각은 달랐다.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 말해온 회사가, 정작 이번에는 안전보다 소비자용 AI 모델의 영업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금요일 오후 1시 15분(미 동부시간), 백악관의 최후통첩이 떨어졌다. 90분. 그 안에 모델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오후 5시 21분, 상무부의 정식 수출통제 서한이 도착했다. 명령의 골자는 단순한 철회가 아니었다. 미국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외국 국적자 즉, 해외 이용자는 물론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심지어 앤트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해서 접근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앤트로픽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국적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날 밤, 앤트로픽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 '페이블 5'와 '미토스 5'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에 풀린 AI 모델이 수출 통제 명령으로 사실상 멈춰 선 것은 인류가 처음 마주한 장면이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하나의 서비스가 멈췄다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는 반도체, 서버, 데이터센터 같은 물리적 인프라가 있었다. 누가 더 강력한 칩을 확보하는가, 누가 더 거대한 연산 시설을 짓는가가 경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제의 대상이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칩과 장비를 넘어, 학습된 지능 그 자체가 전략 무기가 됐다. 인간이 만든 AI 모델이 어느 순간 총과 미사일처럼 규제의 손길이 미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은 먼 나라의 기술 뉴스가 아니다.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쓰던 지능이, 내 의지나 잘못과는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냉정한 현실은 우리가 AI시대에 무심코 잊고 있던 한 가지 진실을 일깨운다. 우리가 '나의 것'이라 믿어온 그 AI 지능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신 AI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수출 통제를 발동해,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앤트로픽은 사용자의 국적을 일일이 가려낼 수 없어 두 모델을 전 세계에서 중단시켰다. 시장에 나온 AI가 정부의 명령으로 멈춰 선 첫 사건이었다. AI Grok 생성 이미지

무기가 된 지능, 연기(緣起)의 사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붓다가 설한 연기의 이치는 이 디지털 패권의 사슬 속에서도 한 치 어긋남이 없다. 더 강력한 지능을 향한 욕망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그 기술을 홀로 거머쥐려는 기업의 야심, 그것을 군사적·경제적 우위로 바꾸려는 국가의 계산, 다시 그 힘을 빼앗거나 베끼려는 또 다른 손길이 차례로 뒤를 잇는다. 얽힌 욕망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의심과 분노로 자라며, 그 의심이 끝내 빗장을 지른다. 그러나 빗장은 두려움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두려움을 키울 뿐이다.

연기의 가르침이 서늘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슬에는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단 하나의 악인이 없다. 모델을 만든 회사도, 거기에 수십억 달러를 건 투자자도, 빗장을 채운 정부도 저마다 사슬의 한 마디였을 뿐이며, 한국 역시 그 연쇄의 끝자락에서 진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러니 통제는 사슬을 끊는 듯 보이지만, 실은 거기에 새 고리를 하나 더 거는 일에 가깝다.

AI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인터넷 너머 서버에 맡겨두고 어디서든 불러 쓰는 기술을 흔히 '클라우드(cloud)'라고 한다. 이 이름에는 묘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다. 구름처럼 가볍고 자유로워, 어디서든 손 닿는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묘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구름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서버이고, 누군가의 법률과 안보 전략 아래 놓인 영토다. 손끝으로 불러내는 지능은 국경 없는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전력망과 기업의 소유권, 정부의 통제 권한 위에서 비로소 작동한다. 접속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내 능력의 확장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접속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본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던 능력이었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빌려 쓰는 지능'의 무상(無常)함이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리라 믿고 움켜쥘 때 괴로움은 싹튼다. 빌린 힘을 제 것인 양 거머쥔 그 자리에, 언젠가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자라기 때문이다.

AI 주권의 중도(中道)

AI가 국경에 갇힌 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묻게 된다. 외국의 AI 기술에 기대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만 만들자는 폐쇄적 자립론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차피 글로벌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이니 지금처럼 빌려 쓰면 된다고 안심해야 하는가. 둘 다 충분하지 않다.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길은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中道)였다.

디지털 시대의 중도란 맹목적 기술 종속과 폐쇄적 기술 거부라는 양극단을 모두 떠나는 지혜다. 그것은 외부의 지능을 지혜롭게 활용하되, 그것에 존재의 뿌리를 통째로 내맡기지 않는 균형이다.

불교 전통은 오래전부터 무상한 것에 삶의 근거 전체를 맡기는 태도를 경계해 왔다. 무상은 단지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허무의 언어가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은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진다는 통찰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아무것에도 기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다.

AI 주권이란 단순히 "우리 모델을 갖자"라는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 의존이 끊겼을 때 사회가 받을 충격에 대비하며, 공공성과 안전을 기준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깨어 있는 능력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빌려 쓰는 지능 위에 삶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지능을 다루는 주인으로 서 있는가. 한 통의 전화가 사흘 만에 세계의 지능을 멈춰 세웠듯, 우리가 영원하리라 믿었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 바뀌는 순간 신기루처럼 흩어진다. 붓다가 무상을 설한 것은 손 놓고 사라짐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변할 것을 미리 알고 그에 휘둘리지 않을 토대를 닦으라는 가르침이었다.

가장 강력한 지능이 가장 손쉽게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더 높은 성벽이 아니라 회복의 구조다. 사라진 것은 하나의 AI 모델이었지만, 그것이 드러낸 것은 기술 종속이라는 우리 시대의 민낯이었다.

무상은 그 민낯을 가리라는 말이 아니다. 똑바로 보고, 지금 준비하라는 말이다. 그 준비를 미룬다면, 무상은 깨달음이 아니라 거듭되는 충격으로만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정토 염원 품은 관세음보살의 응현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⑫ 날개 달린 신선, 선학(仙鶴)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선학과 주악동자 벽화(조선 후기).


경주 기림사 명부전의 학을 안은 동자상(조선 후기).


조선왕실 십장생 병풍의 학 부분(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두루미(Red-crowned Crane)라고도 부르는 학(鶴)은 '뚜루루'하는 울음소리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하천 곳곳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방문한 두루미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학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다. 삼국시대부터 표현된 학은 신선사상(神仙思想)과 십장생(十長生)을 의미한다. 이에 예로부터 학은 신선과 장수를 상징했다. 흔히 학에 신선을 뜻하는 '선(仙)' 자를 붙인 선학(仙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불교미술에도 선학은 자주 등장한다. 선학은 동자를 태우거나 봉황(鳳凰)과 짝을 지어 등장하는데 이는 선학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불국토에 머무는 '극락조(極樂鳥)'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선과 장수 상징으로 십장생도에서 확인
불교미술서 대표적 극락조로 빠지지 않아
경전·게송서 학 언급 '학수쌍존' 단어 등장
관음보살의 화현, 불전 장엄 원력 상징도

신선의 상징

고구려 고분벽화를 살펴보면 갖가지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학을 탄 도교 신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미술 가운데 도자기에는 구름과 학이 짝을 이루는 운학문(雲鶴文)이 확인된다. 청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문양은 학과 구름이 서로 얽혀있거나 교차로 배치되는 형식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 구름은 신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요소다.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은 오래 사는 동물로 유명하다. 보통은 약 3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 기록에 의하면 무려 86년을 산 두루미가 보고됐다고 하니, 단순히 외형만으로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상징으로 불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로 학은 살아온 수명에 따라 그 빛깔도 달라진다고 한다. 이는 중국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학자 최표(崔豹)가 편찬한 〈고금주(古今注)〉의 기록이 가장 이른 사례 가운데 하나다. 〈고금주〉 조수(鳥獸) 편은 세상 모든 길짐승과 날짐승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학이 1000년을 살면 푸른빛을 지닌 청학(靑鶴)이 되고, 여기서 1000년이 더 지나면 검은빛의 현학(玄鶴)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학과 함께 십장생의 일원인 사슴이 1000년을 살면 청록(靑鹿), 1000년을 더 살면 현록(玄鹿)에 이르는 것처럼 선학 역시 사는 세월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기록에는 오방색(五方色)의 중심인 황색 빛깔의 황학(黃鶴)도 존재한다고 했으며 청학과 현학, 황학은 그 빛깔을 달리하여 신령한 기운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선사상 속 불로장생의 아이콘인 선학은 궁중회화와 민화(民畵) 소재로 즐겨 표현된 십장생도(十長生圖)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청학과 황학, 현학 등 오색찬란한 빛깔을 뽐내고 있다.

불교문화의 극락조

학은 청초하고 깨끗하다. 이에 불교문화에서 학은 자주 언급된다. 〈경률이상(經律異相)〉에 의하면, 학이 5근(根)과 5력(力), 8도(道)의 음성을 낼 수 있다고 하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極樂)에는 언제나 갖가지 기묘하고 여러 빛깔을 지닌 학과 공작, 앵무와 사리(舍利), 가릉빈가(迦陵頻迦)와 공명조(共命鳥)가 하루 종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여기서 가릉빈가와 공명조는 불교문화에서 늘 빠지지 않는 극락조(極樂鳥)이니, 함께 등장하는 학 역시 대표적인 극락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극락정토를 표현한 여러 불교미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교 경전이나 스님들의 게송을 읽다 보면 '학수쌍존(鶴樹雙尊)'이라는 단어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정근(精勤)'에도 학수쌍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근이란, 불보살의 존명을 외우면서 수행하는 염불(念佛)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정근 문구 중에는 '나무영산불멸(南無靈山不滅)', '학수쌍존',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南無是我本師釋迦牟尼佛)'이라는 주문 같은 염송으로 도입부를 장식하는 단락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학수쌍존이란 무엇일까?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Kuśinagara)에서 부처님이 누우신 곳 양편에 위치한 나무를 뜻한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의 예고를 받고 슬퍼하는 대중이 모여들고, 사라수(娑羅樹)의 숲은 색이 변하여 백학(白鶴)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두 줄로 선 여덟 나무 가운데 네 그루가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해 하얗게 변한 모습이 마치 학의 깃털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관세음보살의 화신

불교 경전 속 학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법원주림(法苑珠林)〉에 수록된 중국 송(宋)나라 사람인 팽자교(彭子喬)에 관한 설화가 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죄를 지은 팽자교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팽자교는 죄를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에게 고통을 없애줄 것을 간청하며 〈관음경(觀音經)〉을 100번이나 염송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빛나는 섬광과 함께 한 쌍의 백학이 나타나 팽자교의 형틀을 벗겨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까지 하게 됐다는 스토리다.

여기서 백학의 역할을 추측해 보자. 물론, 팽자교는 죄인이기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평소 〈관음경〉을 수지독송한 팽자교를 관세음보살이 어여삐 생각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자신의 수족 같은 학 두 마리를 손수 보내시어 죄를 씻기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에 팽자교 설화 속 백학은 관세음보살님의 뜻을 받들어 자비를 베푸는 존재, 즉 관세음보살의 '화현(化現)'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 이야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바로 경전을 정성스레 읽고 외운 팽자교의 공덕이며 그 공덕이 팽자교를 살리게 된 것이다.

불교미술 곳곳에 표현된 선학

사찰 내 여러 전각 곳곳에는 화려한 벽화와 단청으로 장엄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국토를 형상화한 수미단(須彌壇)과 천장, 닫집부터 기둥과 공포를 구성하는 작은 부재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우리 조상들은 전각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신경을 쓴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살고 계신 전각을 조금이라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공덕이자 원력이요, 이를 통해 사찰을 방문한 신자들의 마음에 불심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하는 중생교화와 포교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찰 벽화와 단청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소재는 바로 봉황과 선학이었다. 두 새는 비록, 불교문화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령스러운 '서조(瑞鳥)'라는 성격과 매혹적인 자태 덕분에 자연스레 불교에 스며들게 된다.

마치며

불교 경전 속에 등장하는 봉황과 선학은 가장 높은 천상계에서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공양하며 불국토의 이상적인 환경과 부처님의 자비심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어진 군자와 불로불사를 표방하고, 때로는 불보살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 두 극락조는 사람들의 소망에서 피어오른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용덕 작가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정성 다하니 전설이 되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㉟ '취사병 전설이 되다'(2026)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관심사병 강성재가 퀘스트 상태창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해결하고, 그 보상으로 스킬과 레시피와 아이템을 얻어가며 소초의 에이스 취사병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지. 건강한 연예인의 상징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전국의 부대를 방문해 위문 공연을 하는 방송으로, 당시 표현으로는 '군부대 위문 프로'였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8년 정도 진행된 이 방송의 주요 내용은 휴가증을 걸고 벌이는 병사들의 장기자랑이었다. 부대장이 포함된 심사위원들이 여러 도전자 중 한 명을 뽑아 휴가를 보내주니, 매회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우정의 무대'에서 가장 유명했고 기억에 남는 코너는 '그리운 어머니'다. 아들을 면회 온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자기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병사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온다.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병사 중에 진짜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를 업고 고향으로 휴가를 간다. 특히 이 코너가 모두의 가슴을 찡하게 만든 것은 코너의 시그널 음악인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놓고"로 시작하는 노래다. 세상에 거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씩씩하고 패기 넘치는 20대 젊은 병사들도 '엄마'라는 단어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도 같이 뭉클해졌다. '우정의 무대' 이후로도 군대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여럿 있었지만 '우정의 무대'만큼의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은 보지 못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만나기 전에는.

외진 바닷가에 있는 해안부대 강림소초에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 강성재(배우 박지훈)는 신병훈련소에서 최우수 훈련병으로 표창까지 받은 인재다. 덕분에 행보관 박재영(배우 윤경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지만, 심리검사 결과는 'S등급'.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입대해서인지 우울증세와 게임 중독성 모두 '매우 높음'이 나오고 말았다. 'A등급보다 우수해서 S등급'이 아니라 최우수 훈련병에서 졸지에 '최우선 관심병사'가 된 것이다.

관심병사의 표식인 '스마일 배지'를 받은 강성재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떠밀리듯 취사병 보직을 받게 되고, 강림소초의 병영식당에는 극악의 요리 실력으로 악명 높은 근육질 말년병장 윤동현(배우 이홍내)이 버티고 있다.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했을 뿐,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모르는 강성재의 앞날이 한없이 암울해진 그 순간, 눈앞에 난데없이 게임 퀘스트 상태창이 뜬다. "용사여, 이 세계는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설의 요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목소리와 함께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을 따라 강성재는 취사병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관심사병 강성재가 퀘스트 상태창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해결하고, 그 보상으로 스킬과 레시피와 아이템을 얻어가며 소초의 에이스 취사병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다. 그러면서도 강성재의 요리를 계기로 중대장 황석호(배우 이상인)와 소초장 조예린(배우 한동희)이 대대장 백춘익(배우 정웅인)의 비리를 밝혀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을 에둘러 비판하는 드라마기도 하다.

게임 캐릭터가 단계마다 미션을 완수하며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문학에서 말하는 영웅담 구조와 유사하다. 영웅담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 출생하자마자 시련을 겪다가 누군가에게 구출돼 그를 부모처럼 여기며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차례차례 해결하고 마침내 고귀한 지위를 되찾는 기본 구조를 갖는다. 영웅담의 핵심은 주인공이 역경을 해결하고 최종적 본래의 고귀한 지위를 되찾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구조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하는 〈화엄경〉의 선재 동자 이야기와 일치한다. 선재 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에 나선 뒤, 성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스승으로 삼아 법문을 듣는다. 마치 〈화엄경〉이라는 게임에서 53스테이지마다 미션을 완수하는 것처럼.

관심병사 강성재, 떠밀리듯 취사병 돼
요리사 길 튜토리얼 따라 최고로 성장
밥의 가치와 마음 살핌 중요성 드러내
한 끼에 담은 정성, 사람 마음 움직여



'취사병 전설이 되다' 포스터.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선재 동자의 구법 역시 핵심은 구법의 최종 단계에서 만나는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은 선재 동자가 구법을 떠나도록 한 최초의 선지식인데, 마지막에 다시 최초의 선지식을 만난다는 설정은 선재 동자가 찾던 최종 목표가 사실은 본래 선재 동자의 지위였다는 뜻이다. 이것을 흔히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고 한다.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는 마지막 회에 등장하는 급식 요리대회 내용에서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 강림소초의 폐쇄를 앞두고, '대회에서 우승하여 초소 폐쇄를 막으라'는 퀘스트를 받은 강성재는 윤동현과 김관철(배우 강하경)과 함께 굳건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간부식당 팀과 공동 1위를 한다. 그런데 우승을 했으니 퀘스트를 무사히 마쳤다고 안심하는 순간, '미션에 실패했다'는 소리와 함께 모든 스킬과 레시피가 사라지고 '요리사의 길'이 종료된다.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한 번 더 승부를 겨뤄야 하는 상황,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프로 셰프 출신의 간부식당 취사병 이호영(배우 오승백)과 1:1 대결을 해야 하는 강성재는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요리를 해야 하는 위기를 맞는다. 절망감에 잠시 흔들리던 강성재는 그동안의 경험과 매일 오감으로 느낀 것에 의지하기로 한다. "양념의 정량이 얼마인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혀로 느끼는 맛이니까. 상태창이 사라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온전히 나 자신뿐이다."

이때 강성재는 쌀 씻는 법을 알려준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 내고는 중요한 각성을 한다. "그래, 어쩌면 상태창이 알려주기 전부터 아빠가 다 알려줬을지도 모른다." 취사병이 된 후로 의지해 온 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정작 성재는 자신을 향한 확신을 되찾고 요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이미 배웠음을 깨닫는다. 성재가 도달한 최종 목표가 사실은 원래부터 본인이 지니고 있던 자리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한 강성재는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버지에게 배운 요리의 정수가 먹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있음을 깨닫는다. 화려한 프랑스식 요리에 맞서 강성재가 내놓은 음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밥'이었다. 음식을 맛본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드라마는 강성재의 입을 빌려, 병사들이 군 생활 중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집밥이고 집밥은 곧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면서, 밥 한 그릇의 온기에 그리움을 채워주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밥 먹는 일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입대 초기만 해도 무기력하고 위축됐던 강성재는 자신의 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밥의 의미를 확인한다. 관심병사인 강성재에게 절대로 칼을 주지 말라던 행보관은 음식 맛에 감동해서 직접 장미칼을 전해주는데, 행보관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짬밥 허투루 먹은 것 아니다"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다. 정성 들여 만든 한 끼의 밥이 장병들이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낼 힘이 되고, 그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강성재에게 제시되는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의 핵심은 경험치다. 게임의 형식을 통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레벨업' 곧 성장으로 이끈다. 처음에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행보관이나 선임 장병들과의 관계도 요리를 매개로 그들과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선한 인연으로 풀어낸다. 그리고 마침내 강림소초의 모든 구성원들이 '밥심'으로 똘똘 뭉친 동료가 된다.

인생도 결국은 경험치를 쌓는 일이다.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에 의지해 '전설의 취사병'으로 성장하는 강성재를 보면서 '인생의 길 튜토리얼'이라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잠시 망상을 부리다가 문득 깨달았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처님 경전이라는 훌륭한 지침서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길잡이 삼아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된다. 굽이굽이 인생길에서 흔들릴 때는, '전설의 불자'가 되는 모든 것을 이미 부처님께 배웠음을 기억하자.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대행 스님

좀 더 한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 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불바퀴라는 것이 마음을 뜻하는 겁니까? 아직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그건 스스로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큰스님 한 걸음 한 걸음, 국민학교 학생이 대학교를 가려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알게 되겠죠. 우선 자기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들고 나는 모든 것은 거기라고 믿고 거기에 맡기고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공부를, 마음의 공부를 잘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없습니까? 허허허. 그래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해서, 아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내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형님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온통…. 또 그것뿐입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맘 가졌다가 저 맘 가졌다가.

그러니 어떤 거 할 때 여러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공해서, 여러분은 공한 한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너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놈이겠습니까? 다 한 놈이지. 한 놈이란다고 또 절 욕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니깐 그렇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러니 이것부터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죠. 네?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거, 무와 유,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부터 알아야 그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저 누구 말마따나 모아 모아 닥치는 대로 이놈이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하는 거니까 이놈이 해결할 수 있고, 이놈이 하는 거니까 이놈이 성사를 시킬 수도 있고, 이놈이 하는 거니까 이놈이 우울한 것도 우울치 않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도 할 수 있고, 아주 비관을 사게도 할 수 있는 이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뭐, 누구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와 국민, 아니 세계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반의 중생들, 그런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실천을, 궁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만이 나도 좋고 싱긋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도 좋고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리를 통달한 분이 한 번 웃는데, 이 우주 법계가 다 웃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한테 질문할 게 없습니까? 만약에 이 대답을 한 번 하면 내 상을 주죠, 또. 우리 스님네들은 말고요. 과거가 현실이고 현실이 과거라면 어떤 게 옳겠습니까? (부축을 받으면서 나오고 있는 여신도를 보시며) 상 받으려고 애를 쓰네. 허허허. (대중 웃음)

신도3(여) 스님, 그 질문하신 그것은 현재 아닙니까? 현재. 그런데 스님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87년 7월 15일 날,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그렇습니다. 스님, 이해하세요. 스님이 질문하신 그 대답은 현재 아닙니까?

큰스님 현실이라고?

신도3(여) 네.

큰스님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시고) 그렇게, 그렇게 물질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고 말하는 건 아는 게 아닐세. 그전에는 땅속에 씨를 뿌려서 자라게 했고 싹이 나오도록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 나왔는데, 인제는 좀 더 거름도 줘야겠고 좀 북도 돋아 줘야겠고, 이러니까 하나하나가 인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야 나도 그릇이 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으면 나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만약에 건방지게, 요만한 (물컵을 들어 보이시고) 그릇에다가 한 드럼통을 붓는다 해 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요 종지라면 나도 종지일 수밖에.

공부들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의 가정을 열심히 이끌어 가고,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도모해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부드럽게 말해 줄 수 있고, 모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만 해 나갈 수 있다면 큰 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모든 산천초목을 다 근본으로 마음에 두고 양식 삼아 정말이지 여러분은 대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이 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아하,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니까.'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예전에 어느 스님이 팥죽을 쑤다가 팥죽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거를 주걱으로 다가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그러고 주걱으로 쳤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은 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잔뜩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 지어서 악업 선업이 속에서 들입다 나오는 거는 어떤 사람 어떤 솥에서 방울방울 지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소리죠.

그러니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고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고, 그 팥죽 하나하나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치미는 거, 보고 듣고 비위 상하는 거, 나라를 원망하고 또 시대를 원망하고, 내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온통 친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바로 넝마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갈이 찢어진 넝마.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네놈이 이끌고 가는 거니까.', 내가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도 바로 '네놈이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거기에 맡겨 놓을 때 비로소 행복감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인물이 돼서 나중에는 수천수만을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한 명, 자기 발로, 즉 말하자면 이런 거 있죠. 수천 명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도 걸림 없이 끌고 갈 수 있다. 돈벌레가 다리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거침없이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게 내 발이니까. 내 마음이요 내 발이요, 바로 내 마음 내는 것이니 그대로 둥글게 모가 안 나고 여여하게 그 돈벌레가 다리가 그렇게 많아도 걸리지 않고 가듯이….

이 마음이라는 건 바로 실체가 아니어서 큰가 하면은 작고 작은가 하면 큽니다. 여러분, 사계절도 사계절 나름입니다. 보세요, 가을이 돼서 장마가 크게 드는 때도 있고 작게 드는 때도 있고, 사람이 많이 피해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고가 아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 말라

☞ 19면에서 계속

보는 때도 있고 적게 피해를 보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을도 가을 나름이요, 봄도 봄 나름이요, 겨울도 겨울 나름이다 이겁니다. 여름도 여름 나름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업보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고 인과를 만듭니다. 그저 이 세균도 업신여기고 저런 지렁이도 업신여기고 그러지만 여러분 배 속에는 지렁이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배 속에 없는 게 없이 모습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나, 그놈들이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신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벌레를 보면 아주 징그럽다고 하죠. 나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모습은 그렇겠죠. 그러나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참 욕심 없는 사람이 돈을 왕창 벌었을 땐 남하고 같이 나눠 쓰지만, 마음이 강하고 아주 욕심 많고 그냥 못된 사람이 돈을 왕창 벌면 그거는 허튼 데다 쓰는 겁니다. 나쁜 짓만 하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짐승들도 모두 그렇죠. 그래서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맞으면, 그 이슬은 아주 참 감로수와 같은 물인데 그 독풀이 빨아들이면 독이 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약풀이 마시면 약이 된다 이거야, 사람을 살리는. 응? 이러니 누구 탓입니까, 이게 다? 다 여러분 탓이지. 이 모두가 여러분이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가정에서도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라는 애깁니다.

지금 여기 선원에는 정신이 좀 잘못된 이러한 분들도 많고 백혈병이니 또는 골수암이니 또는 무슨 암이니 속앓이니 뭐, 별 병이 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다 가지고 여기 재료로 삼아서 옵니다. 그러나 그게 재료지 여기에 의사가 있어서 병 고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서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을 합니까? 몸속에도 중생들이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자기입니다, 자기. 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세균이 여러분이 아니고 딴 분입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파업을 일으켜서 잘못한 거라면 거기서 가라앉히고 거기서 낫게 해야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70%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전부터 말을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병이 들면은 인간이 허무하고 정말이지 살맛이 안 나고 죽고만 싶고 허망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만사가 무상한 것을 알면서 도리어 이가 앙다물어지면서 나는 이 도리를 알아야겠다는 그 각오가 뚜렷하게 섭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아파서, 언젠가는 사대가 흩어져서 허망한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갈 때 한데 모였다가,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져서 딴 구름하고 또다시 모이듯이, 인간도 사대로 흩어져서 바람으로 물로 불로 흙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원점으로 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모의 뼈와 살을 받아서 몸을 받되 그것이 한데 모여서 거기 가서 다시 또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이 되니깐요.

인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못 썼다 하면 소로도 태어나고, 독사로도 태어날 수 있고,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만약에 마음을 잘 썼다면 사람으로 태어나되 장관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 누빌 수 있는 그런 통달한 성인이, 성자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마음, 그 마음이 천차만별의 이 모든 살림살이들을 들고 내는데 그놈이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좀 더 한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도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좀 더 이끌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질문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난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늙으면 이 몸뚱이는 쇠약해지죠. 저 나무도 늙어서 고목이 되면은 껍데기가 흐치흐치해지고 진물이 나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채공도 해 보고 공양주도 해 보고 또는 불목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안 해 본 것 없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했죠. 물지게를 안 졌나. 물지게 지는 건 그냥 한 번 이렇게 지는 게 아닙니다. 일 전을 가지고 가면 오 푼에 한 통씩이니까 그 일 전을 가지고 가면은 한 지게죠. 한 지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걸 받아서 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샤쓰가 있고 신발이 올바른 게 있었다면 고생도 덜했을 텐데, 그런 거를 사서 떨고 섰다가 그거를 지고 오면 지고 오는 대로 엎질러지면 그 귀한 물을 엎질렀다 이거죠. 신발은 반짝짜리 게다를 끌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내 인생을, 그렇게 채찍들이 가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도 누구 원망을 안 했습니다. 단 "엄마!" 이렇게 부를 거를, 이 속으로 '아빠!' 그러고는 아빠 한마디 목이 메어서 불러 놓고는 우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나이에. 아홉 살부터 말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어떡하면 있는 사람 거를 훔쳐다가', 허허허, '그 고생하는 사람한테 몰래 밤중에 갖다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굶고 부황이 났을 때 이거를 훔쳐다 주어서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면, 그거를 아침에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에 밤을 허옇게 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를 나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으니깐요.

이 무심 도리라는 것이 전체…, 이게 고만둔다고 하고 또 자꾸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아니, 그거를 보이지 않는데,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몸이 보이는데 붙잡히지 그게 붙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잡히지 않는 그런 도리를 아주 밤이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는…. 그냥 드러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물이 흐르고,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신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낫겠지만, 나야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거지가 아니라 돈 몇 푼 주는 것도 받지 않았죠. 그저 다만 얻어먹은 거는 간장물밖엔 없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져도 그대로 인생이 한 번 죽는 거,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그냥 걸어갔을 뿐이죠. 나한테 닥치는 거 마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군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조그마한 초립동이가, 아니 조그마한 동자가 행전을 상그렇게 매고 키 하나를 들고선 허공에 나섰습니다. 허허허, 그것이 은사가 키 하나를 들려서 내보낸 거죠. 그거를 영 스무 살이 되도록 몰랐다가 그게 의문이 났습니다. '키 하나를 줘서 내보내다니 참, 그게 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벼는 찧어 놨으나 까부르질 않아서, 닦아라 이 소리지. 벼는 다 절구질을 해서 찧어 놨으나 아이, 까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까부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 하나 줘서 내보낼 수밖에.

그 어린 게 키 하나를 들고 사막 같은, 엊그저께 그 콜로라도에 갔을 때의 그 끝도 없는 사막과 같았어요. 끝도 없어, 하여튼. 황야야, 그냥. 그 황야를 그때에 보는 그 심정이야. 어린 동자가 키 하나를 들고 나섰다 이거야. 갈 데 못 갈 데 뭐, 증명해 놓은 무슨, 아니, 그 주막이 있습니까? 이 진리라는 건 주막도 번지수도 없는 겁니다. 끝도 기약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키 하나 들고 그냥 나섰죠.

그 키는 누가 줬느냐고요? 허허허. 은사죠. 내 은사. 내 은사는 내 가슴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 키를 집어라.' 그, 남이 내버린 키야. 이거를 하나 집고, 그걸 몰랐단 말이야, 글쎄. '그 키를 집어라.' 집었지. '이걸 가지고 가자.' 가라 이거야. 그걸 들고서 가다가 보면은 또 바닥이 차면 그걸 깔고 앉고 그랬지 뭐, 모르니깐. 허허허. 나 참 재미있게 살았다고.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그런 맛을 못 볼 거야, 아마. 못 봤을 거야. 음. 그 어디 가서 앉았으면, 돌에 앉았으면 그것 깔고 앉았고, 풀에 앉아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 깔고 앉고. 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홀연히, 그 키가 그 키가 아니라, 키가 아니라 키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당신이오. 당신을 보고 싶소.' 하고서 하니까 '야, 색경을 봐라.' 그래. 허허허,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도, 이것이 무슨 뭐, 경을 보고 설법을 듣고 뭐, 절집에 왕래를 자주 하고 이랬어야 알지. 그래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가서 점검을 자꾸 했던 거지. 내가 그렇게 발부터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모두 발부터 들어서지 않아. 이건 그냥 결사적으로 발부터 들어서야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발부터 들어서야 된다 이 소리야. 그냥 너는 너. '대행 스님은 저기 그냥 계시니까, 난 여기 있으니깐' 이럭하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 응?

그런데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따로따로, 모습은 따로따로 돼 있는 거야. 저 봐. (천정의 전등을 각각 가리키시고) 셋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 그렇지만 전력이 똑같은데 어찌 따로따로 있는 거냐 이거지. 전력이 없다면 저거 빈 전구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척척 떼 버리겠지. 마음대로들, 이건 자유니까. 공부를 하고 못 하고는 자유야.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고 그게 없습니다. 이 선맥을 이어받는 데는 나중 들어오고 먼저 들어오고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공부 열심히들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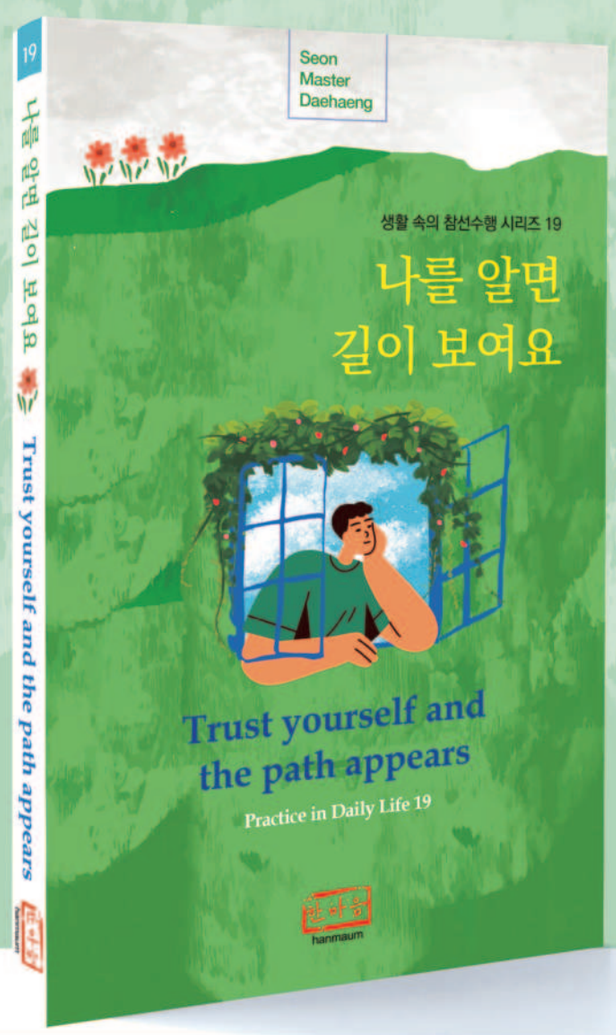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6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거,
무와 유,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부터 알아야
그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⑪ 나는 가야금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라지는 선율 뒤로 외면했던 나를 보다

음원을 공개한 날

부처님오신날, 절에 갔다. 엄마와 함께였다. 마당은 사람으로 가득했다. 연등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봉사자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축제 같았다. 공양간에 가보니 식혜, 과일, 이런저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을까 싶었다.

엄마가 아는 스님 한 분이 계셨고, 자리를 함께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요즘 하는 일들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가야금을 전공했고 지금은 명상을 공부하고 있다고. 마침 부처님오신날이기도 해서, 오늘 공개한 반야심경 음원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음원을 공개한 날이라 조금 들떠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은근히 궁금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의 뜻을 비워내고 던져내고 흘려내는 언어로 담은 노래였다. 나름 공들인 작업이었고, 이런 날에 꺼내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스님은 잠깐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야금 전공하셨다고요? 그게 더 궁금한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스님은 음원 이야기보다 가야금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이셨다. 나는 새로 만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상대는 내가 오래 해온 것을 먼저 보고 있었다.

사라지는 일을 오래 해왔다

요즘 스스로를 가야금 연주자라고 소개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연구는 논문으로 남고, 콘텐츠는 텍스트와 조회 수로 남는다. 그런데 연주는 그 순간 사라진다. 연주가 끝나면 박수만 남는다. 가끔은 그 박수조차 집에 가는 길이면 다 잊힌다.

남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면 가야금만으로 살아갈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여러 일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명상을 공부하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가야금은 내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였다. 그래서인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한동안은 가야금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가야금은 늘 차에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줄을 한 번 더 뜯어보는 일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나면 무의식처럼 손이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를 만들어 미뤘다.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한 달도 금방 지나갔다. 어떤 날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도 한참 내려가지 못했다. 뒷좌석에 놓인 가야금을 보는 것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예전에는 가야금이 내 가장 익숙한 물건이었는데, 그때는 눈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연주 대신 시간 지나도 남는 일 하고파
나 자신에게 증명하듯 새 길 걸으려 해
청 벗어나듯 가야금서 비껴간 나 자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스님이 가야금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시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남았다. 엄마에게 나는 여전히 가야금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콘텐츠를 만드는지보다도, 아직도 가야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었다.

세 개의 얼굴

돌아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가야금 연주자들과 있으면 요즘은 무슨 곡을 연주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면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 반대로 명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야금과 명상을 이어나갈 접점을 설명하게 된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는 전통음악을 한다고 하면 흥미로워하면서도, 어딘가 먼 이야기처럼 듣는 경우가 많다. 어느 자리에서도 완전히 편안하지 않다. 어쩌면 상대에 맞게 나를 꺼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덜 들킬 얼굴을 고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님의 그 질문은 달랐다. 평가가 아니었다. 그냥 가야금이 궁금하셨던 것이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다. 내가 밀어두었던 것을 누군가 먼저 알아봤을 때의 그 묘한 감각. 부끄러운 건지, 반가운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청(淸)이 이동하는 것과 청을 잃는 것

국악에서는 합주 전에 반드시 청을 잡는다. 청(淸)은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기 위해 맞추는 기준 음높이다. 청이 흔들리면 음 하나를 틀리지 않아도 어딘가 불안하게 들린다. 문제는 청이 움직이는 순간보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다. 그런데 한 곡이 끝날 즈음에는 처음 맞췄던 청에서 제법 벗어나 있기도 하다.

나 역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자아를 상황마다 조율하는 것과 자아가 상황마다 흔들리는 것은 아마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나는 새로운 나를 보여주려 했는데, 스님은 가야금을 먼저 물었다.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다.

누가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물으면 아직도 잠깐 멈칫한다. 아직 내 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질문을 들은 뒤로, 차에 실린 가야금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됐다. 어쩌면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은 가야금이 아니라, 가야금을 하는 나였는지도 모른다.

가야금 명상곡 '아제아제(Vocal by AI)'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⑭ 척추 수술

척추 내시경이 깨운 일상의 즐거움

"원장님,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지옥 같습니다. 다리가 터질 것처럼 저려오니 삶의 의욕까지 떨어집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중반 남성 환자의 낙담 섞인 한숨입니다. 평생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등산과 골프 등 은퇴 생활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온 다리 통증은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한 운동 탓이라 여겼지만, 점차 몇 분만 걸어도 주저앉아야 하는 '간헐적 파행'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원인은 척수신경이 통과하는 관이 뼈와 인대의 비대로 인해 꽉 막혀버린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술을 권유했을 때, 환자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허리 수술 잘못 받았다가 침대에만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픈 채로 버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척추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다릅니다. 최소한의 침습으로 원인만을 정확히 치료하므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전한 대안입니다.

과거 수술, 등 뒤 크게 절개 병변 노출
現 최소 침습으로 원인 치료 가능해져
전문의 진단 아래 최적의 치료 받기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

과거의 전통적인 척추 수술이 등 뒤를 크게 절개하여 병변을 노출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정상적인 구조를 보존하는 정밀한 치료입니다. 허리에 단 1㎝ 정도의 작은 구멍 두 개만을 뚫어 치료가 진행됩니다. 한쪽 구멍으로는 초고화질 내시경으로 수십 배 확대해 정밀하게 관찰하고, 다른 쪽 구멍으로는 소형의 수술 기구를 넣어 신경의 숨통을 조이던 뼈와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제거합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이 수술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감당해야 할 신체적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피부 절개가 적어 출혈이 적고, 근육의 손상이 적어 수술 후 통증이 대폭 감소합니다.

실제로 등산은 물론 버스정류장도 가기 힘들어했던 앞서의 환자는 수술 다음 날부터 부축 없이 제 발로 병동 복도를 가볍게 걸었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진료실을 나서며 그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원장님, 올해 가을 단풍 산행은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작 원장님을 믿고 용기를 낼 걸 그랬네요."

환자 상태에 따른 정확한 수술법 선별 필요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맹신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척추 전방 전위증 등 불안정성을 동반한 질환이거나, 심한 추간공 협착증으로 광범위한 감압이 요구될 때는 내시경 감압술보다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엄격히 선별해 내는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년 건강수명 유지 위한 적극 치료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곧 삶의 품격이자 건강수명을 늘리는 핵심입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한 보행 장애는 개인의 취미를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부 활동 단절로 인한 우울증과 전신 근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이제 척추 수술을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길'로 여겨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척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아래 나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를 받는다면 빼앗겼던 일상의 즐거움은 언제든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승철
거인병원 척추센터 과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0622-중-155142호

세워라 척추! 걸어라 관절! 거인처럼!!



거인병원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⑪

"쌀이 없다니…"



전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뽀디봉 마을의 280가구를 대상으로 쌀 10㎏씩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한국에서 캄보디아까지 오는 길도 멀지만,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경 지대인 뽀디봉 마을까지 오는 길도 12시간이나 걸리는 먼 여정입니다. 지금은 우기 철이라 비가 내릴 때는 세상이 무너질 듯 쏟아지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쌀이 없다니요. 수레꾼 공예학교의 봉제팀원들조차 며칠치 쌀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주민들은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장해 두었던 식량은 모두 바닥났습니다. 어렵게 마을로 돌아왔지만 농지의 절반 이상이 태국군의 비행기 폭격과 로켓 포격으로 깊은 웅덩이가 파여 벼를 심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녹말 원료인 카사바를 재배해 대부분 태국으로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국경 분쟁 이후 태국으로 가는 판매길이 사실상 막혀 버려,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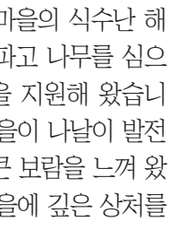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확인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마을 대표와 상의한 끝에 현재 마을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280가구에 쌀 10㎏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급히 쌀을 구입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7시 30분이 되기도 전에 주민들은 뽀디봉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전날 밤 늦게까지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배급표를 나눠 줬고, 주민들은 운동장에 펼쳐 놓은 쌀 꾸러미를 안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10㎏에 불과했지만 주민들은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러 번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어르신도, 연신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는 아주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들 앞에 섰지만 끝내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수레꾼은 이 마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학교와 주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황무지 같던 마을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껴 왔는데, 전쟁은 이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민들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통역을 맡은 직원도 함께 울먹였습니다. 잠시 운동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전쟁이 남긴 상처와 주민들의 아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쌀 배급이 끝난 뒤 주민들은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쌀 10㎏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식량 위기만큼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수레꾼은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쟁 이후 찾아온 이 위기를 뽀디봉 마을이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⑥ 멈추어 바라보는 지금, 법(法) 속에 법[佛法] 깃든다

부처님 가르침 스미도록 곁 내어줄 터

"불법단체입니다." 동아리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은 으레 한 번 놀라고, 곧이어 웃음을 터뜨립니다. 법을 어긴 조직[不法團體]을 떠올렸다가, 부처님의 법을 나누는 모임[佛法團體]이라는 본뜻을 알고 나면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하필 법과대학에서 이런 이름이라니,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佛法團體)'의 지도법사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함께 나누자는 뜻으로 스스로 지은 이름입니다. 세속의 법(法)을 배우는 이들이 부처님의 법(法)에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니, 이름부터가 이미 작은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지도법사를 맡았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과 책임감이 앞섰지만,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이 자리가 제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주는지 차츰 깨닫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시, 진로의 무게가 학생들을 짓누릅니다.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잘 배우는 법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과대 연합으로 중국 광저우 탐방을 떠났습니다. 선(禪)이 처음 꽃핀 육조 혜능 스님의 도량 남화선사를 비롯해 운문선사·동화선사·광효사를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동화선사에서는 만행 스님과의 인연으로 사흘간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또 제주도 약천사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근처 해군 법당인 해관사를 참배한 뒤 왕건함에 직접 올라 보는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을 몰랐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행이 생활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진로 무게 내려놓으며 나를 찾는 시간
일방적 지도 대신 마음 나누는 법회로
부처님과 자연스레 만나는 길 밝히리

보시를 몸소 체험하며 하심과 회향의 마음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회를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가꿔 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될 때, 학생들은 그곳을 자기 자리로 여깁니다. 때로는 법문 한 구절보다 시험을 앞두고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 하나가 더 많은 말을 건넵니다. 그 표정을 알아봐 주는 것에서 우리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법사이기보다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학생들이 부처님을 어렵지 않게 친구처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당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 가는 명상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손에 쥐여주기보다, 학생들이 제 물음을 스스로 끝까지 따라가도록 그 길에 등불 하나 밝혀두는 일. 그것이 법사로서 제 몫이라 여깁니다.

우리 학생들은 머지않아 세상의 법(法)을 다루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법조문 너머의 더 큰 법, 곧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법의 뿌리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색은 옅게, 다가감은 깊게. '불법단체'라는 이름이 주는 작은 웃음처럼, 부처님의 법도 학생들 곁에 가볍게 머물다 어느새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장차 그들이 다루게 될 세상의 법 한 줄 한 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길어 올린 부처님의 마음이 함께 스미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학생들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동진 스님
동국대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지도법사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㉑ 기다림 그리고 행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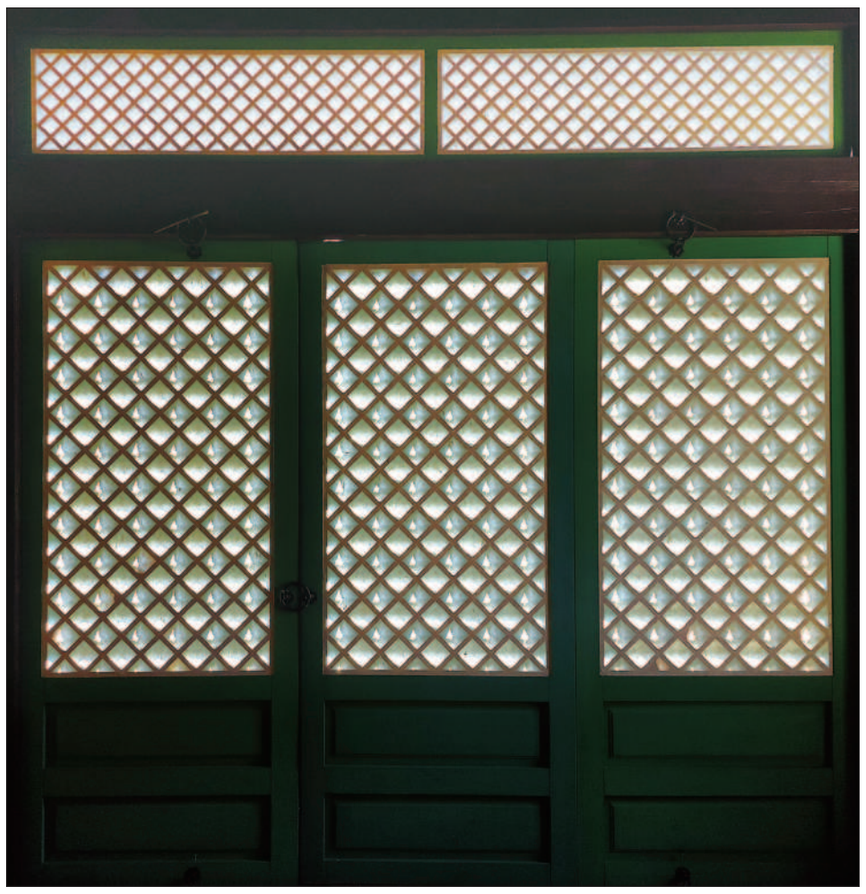
사진가는 빛을 다루는 사람이다. 목수가 나무, 제빵사가 밀가루를 다루듯이.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무와 밀가루는 재료이지만 빛은 수단이다. 수단이라 해서 목수의 연장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진가가 다룰 수 있는 빛은 제한적이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참 많이도 그림을 찍었다. 전시회 포스터나 도록을 만들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원본에 가깝게 찍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조명을 물감처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조명을 물감처럼 쓴다는 것은 원작의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빛을 매개로 필름 혹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왜곡을 최소화하여 원본(그림)의 이미지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진가의 의도는 '0'이어야 한다. 사진가는 '제로' 상태에서 오로지 화가의 의도에 최대한(99.9%) 가까이 다가간다. 조명 제어는 의도 '0'에 수렴되는 과정이다. 이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다.

사찰의 문에 핀 꽃을 찍기 위해서는 의도 '0'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기다림', 그리고 얼마일지 모를 '행운'이다.

손영자 작가



횡성 봉복사 대웅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트로트 가수들을 DJ로 만나는
트로트 듣기 딱 좋은시간
09:00
매일 저녁 7시 울림라디오에서 만나요!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나상도·남궁진의 쾌남열전
별빛달빛 배아현입니다
성리와 데이트 시즌2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당연함 내려놓는 순간, 삶은 기적이 된다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대부분의 사람은 익숙함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숨을 쉬며,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일상은 너무 익숙하여 좀처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어느 하나라도 멈추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무명이며, 고통이 시작되는 뿌리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삶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비교와 불평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한다.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은,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갈증을 호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착각은 바로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이 생각이 무너질 때라야만 비로소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있다.

한 지인은 무릎이 아프기 전까지는 계단을 오르는 일을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수술 후 목발을 짚고 몇 주를 생활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계단 한 층 오르기가 소원이 됐고, 혼자 걸어서 편의점에 다녀오는 일이 기적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회복 후 다시 두 발로 걷게 되었을 때 그는 말했다.

충분함 대신 부족함만 볼 때 고통 시작
'당연한 것 없다' 인식 전환, 감사 이끌어
수행은 주어진 삶 소중함 발견하는 과정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게 아니라, 원래 누리고 있던 복을 이제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거기에는 자연과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존재의 노력이 담겨 있다. 한 사람과의 만남도, 그 속에는 깊은 인연이 깃들어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무심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숨 쉬고 있음을 알고, 살아 있음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특히 '숨 쉬는 사람임에 감사'라는 인식은 삶의 본질을 드러낸다. 숨이 이어진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며 현재를 소모하는 삶은, 이미 가진 가능성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곧 현세정화이며, 마음을 밝히는 길이 아닐까. 결국 행복은 외부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당연함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새롭게 바라볼 때, 평범한 일상은 곧 수행의 장이 되며, 그 속에서 지혜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어쩌면 감사는 거창한 덕목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일지 모른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으며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선물이다. 수행이란 특별한 무엇을 더 얻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과정일 수 있다. 오늘 하루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부족함의 세계에서 충만함의 세계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을 것이다.

지구 환경 살리는 '생태 재일'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11일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 발생을 발표했다.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내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기후가 위기라는 말도 더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용어의 강도는 세졌으나 우리의 감정은 점점 무뎌지기만 할 뿐이다.

불교생태 철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조애너 메이시는 기후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에 무뎌지는 사람들의 태도라 했다. 기후 위기라고 하면 폭염이나 거세진 태풍, 홍수나 가뭄은 떠올려도 기상이변이 가져올 농업 부문의 재난적인 상황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당장은 식품 매장마다 그득한 먹을거리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군신화에 따르면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풍백, 우사, 운사와 함께 왔다. 이들은 각각 바람, 비, 구름을 주관하는 농경사회의 핵심 관직이다. 기후가 인간 삶을 좌우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를 관장하는 바람, 비, 구름 생성 메커니즘이 매우 불안정해진 걸 일컬어 기후 위기라 한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은 없다. 그러니 모두가 기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기후 위기에도 삶 위협 심각성 못 느껴
국가 탄소 저감 정책·개인 실천 요구돼
대중교통·채식 등 재일마다 실천 반가워

국가 차원에서 탄소를 줄일 정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실천이 담보돼야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일 수 있다. 혹자는 개인의 실천이 이제 너무 진부하다고 하지만 그 진부하고 오래된 실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리에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모습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배달 음식은 일회용 그릇에 담겨온다. 우리의 일상은 기후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탄소중립과 생명 전환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불교의 연기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위원회는 '생태 재일' 실천을 제안했다. 사찰의 일정은 대개 재일을 중심으로 한 달 주기로 반복된다.

이에 환경위원회는 재일인 초하루, 약사재일, 보름, 지장재일 그리고 관음재일마다 실천 가능한 활동을 하나씩 제안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채식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실천을 재일마다 행동으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약사재일이다. 질병으로 아픈 이를 넘어서 기후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글로벌 사우스에 사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보시하는 것으로 실천을 확장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이런 실천은 결코 작은 실천이 아니며 한 달 주기로 반복해 몸에 익히다 보면 일상의 삶이 단순 소박해지고 매 순간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삶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생태 재일이 반가운 이유다.

社 說

선명상, 위기의 공교육 살릴 대안

최근 교육계에서 선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조계종 선명상위원인 혜주 스님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서울시교육에서도 마음건강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선명상 기반 교육 콘텐츠를 검토하고 있다. 조계종이 수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가 교육 현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심각한 '마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과 관계 갈등, 과도한 디지털 자극으로 우울과 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교권 침해와 과도한 행정 업무, 악성 민원에 따른 정서적 소진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학생·교사 마음건강 위기, 공교육 새 과제
'선명상'은 보편적 교육 자원…도입 기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계가 선명상에 주목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선명상은 특정 종교의 수행법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고,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하게 돕는 보편적 교육적 실천법이다. 이는 현대 교육계의 화두인 '사회정서학습(SEL)'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명상 교육의 효과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 자기조절 능력 강화, 회복탄력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감소와 소진(번아웃) 예방, 삶의 만족도 향상, 학급 분위기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선명상은 문제가 발생한 뒤 치유하는 사후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예방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힌다면 학교폭력과 갈등, 충동적 행동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계종은 그간 선명상 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국제선명상대회와 학술세미나를 통해 교육적 가능성을 검증해 왔고, 학생 맞춤형 교육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했으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명상과 사회정서학습을 결합한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RISEL)'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교육 현장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다행히 최근 교육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선명상 교육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마음건강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선명상이 공교육의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선명상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학생들에게는 평정심과 회복력을, 교사들에게는 치유와 행복을, 학교 공동체에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복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6월 2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6월 2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2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초심이 AI 영상 공모전



공모 주제

초심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불교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나눔, 배려, 감사, 명상 등의 불며드는 순간을 AI영상으로 표현해주세요

응모 내용

세로형 숏폼 영상 (쇼츠 혹은 릴스 형태)

- **크기** 1080x1920 해상도 및 30fps 프레임 권장
- **길이** 플레이타임 제한 없음
- **포맷** 별도 코덱 없이 재생 가능한 형태 (H.264 권장)

참가 자격

개인 또는 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각 팀 당 1건 제출

접수 일정

- **기 간** 2026년 **6**월 **24**일 ~ 2026년 **8**월 **5**일
- **1차 선정** 2026년 **8**월 **15**일
- **최종발표** 2026년 **9**월 **2**일

시상 내역

대 상	200만원 (1명)
최우수상	100만원 (2명)
우수상	50만원 (3명)
장려상	30만원 (6명)

접수 방법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접수 페이지로 즉시 이동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주최 · 주관
현대불교신문

초심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